경국 고도에서 역사, 걸병을 만나다

경국어권화학과 2012년도 국외학章답사지 1.31~2.4

국외답사 일정표

| 답사지 | 역 | 정주 | /등봉/낙양/개 | 공 당사기간 2012년 1월 31일(3 ~2월 4일(토) | | 2012년 1월 31일(화) ~2월 4일(토) |
|------------------|-----------------------------|----------------|--|---|--|------------------------------|
| 일자 | 도시 | 교통편 | 시 간 | 일 정 | | |
| 1 1/31 (화) | 인천 인천/정주 정주 정주/등봉 | KE 809 전용버스 | 08:00 1000/1130 1200/1300 오후 1900/2130 | 인천공항 3층 출국장, 만남의 장소 집결 인천 출발/정주 도착. 입국수속 가이드 Meeting 전용버스로 시내이동 후 楚河漢界古戰場風景區, 飛龍頂, 石窟寺 정주 출발/등봉 도착(78km 약1시간30분) 후 호텔투숙 | | |
| 2 2/01 (수) | 등봉/숭산 소림사 숭산/낙양 낙양 | 전용버스 | 0700/0730 오전 1300/1430 오후 저녁 | 호텔 조식 후 전용버스로 숭산 소림사 도착 少林寺, 숭산(왕복 케이블카) 숭산 출발/낙양 도착(약76㎞, 약1시간30분) 關林, 龍門石窟(香山寺, 白園) 석식 후 호텔투숙 및 자유일정 | | |
| 3 2/02 (목) | 낙양 낙양/개봉 | 대중교통 | 오전 오후 저녁 | 호텔 조식 후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유일정 낙양 출발/개봉 도착(약220㎞ 약3시간) 후 호텔투숙 | | |
| 4 2/03 (금) | 개봉 | 대중교통 | 오전 오후 저녁 | 호텔 조식 후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유일정 자유일정 | | |
| 5 2/04 (토) | 개봉/정주 정주 정주/인천 | 대중교통 KE 810 | 0900/1030 10:30 1230/1535 | 호텔 조식 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개봉 출발/정주 도착 탑승수속 및 출국수속 정주 출발/인천 도착 | | |

들어가는 말

답사에 크음하여

'중국'은 지금 거대한 땅으로 표상되지만, 그 '중국'의 기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중원'이라는 단어와 포개진다. 중화 질서 속에서 가운데를 구성하는 핵심으로서의 공간, 중국인들의 이념 속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곳이 바로 이 중원이라는 점에서다. 곧 핵심으로서의 '중국', 그것이 '중원'의 내용을 채우고 있다. 이번 답사는 바로 그 중원을 찾아 나선다. 그렇다면 중국의 폐부를 들여다보는 좋은 기회?

고대중국인에게 선진 문화의 공간, 그래서 자부심이 투사되는 장소로 상정되었던 이 곳 중원은 이후 역사 속에서 이념으로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 현재성을 강화해나가며 명 실상부한 중원으로 재생산되었다. 그 웅도는 수도의 배치 속에서 도드라진다. 이번 답사에 서는 아쉽게 들르지 못하지만, 서쪽으로는 장안長安, 곧 서안西安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오 른편에는 낙양洛陽, 개봉開封이 연이어 중화 제국의 수도를 품고 웅거하였다.

하지만 이민족 국가들이 중국에 들어서면서 중원의 질서는 이민족의 공간을 포함한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 편입되어 재편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고대의 중심축으로서의 중원의 위상은 자연 와해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낙양과 개봉은 옛날의 그 영화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빈약하다. 여기에 하남 지역에 쏟아지는 중국 내지에서의 멸시의 시선도 가세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실재의 힘에 대한 회의를 부른다. 더욱이 후대에 이루어진 재현은 실재를 극복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시뮬라크르의 공간만을 남겨놓았다. 부재하는 명성은 허무하다. 그래서 그 거대한 자장에도 불구하고 쉬이 발길이 닿지 않는 땅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리하여 만들어지는 중원을 둘러싼 아쉬움 섞인 이야기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쉬이 발길이 닿지 않았다. 떠오르는 생각.

'도대체 이런 부재 그리고 혼란의 공간에서 무엇을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아니, 그렇다면 이번 답사는 결국 부재의 공간을 찾아 나서는 셈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이 부재의 공간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 것인가?'

당연히 환기되는 이러한 문제의식, 그리고 부재를 본다는 이 무슨 아이러니? 하지만 이것이 중원을 찾아나서는 출발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만 중원의 공간은 이미 각자의인식 속에 있음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방해받게 될 수많은 간섭들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안목으로 대면하는 즐거움을 맛보도록 자신을 다잡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여 이번 답사는 중원의 재현들로 각자의 시선과 인식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흔적들로부터기억의 편린을 엮어내어 자신만의 중원을 구성해내야 하는 것이다. 그럴 때에야, 중원은 중원으로서 다가올 수 있다.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중원을 재현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답사지가 가지는 의미는 각별하다. 바로 재구성을 위한 재료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재현의 자장을 넘어서기 위해 더 없이 많은 준비가 필요했지만, 그래서 답사지에보이는 비어있음과 서투름은 아쉽기만 하고 또 준비과정에서 함께 중원을 논할 기회를 갖지못한 것은 아쉽고 미안한 일이지만, 애써 위안해본다면, 답사지와 실재의 간극, 그리고 재현과 실재의 간극을 체험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서 일어나는 허망한 낙하. 이 깨달음이 중원을 찾는 큰 의미일 수도 있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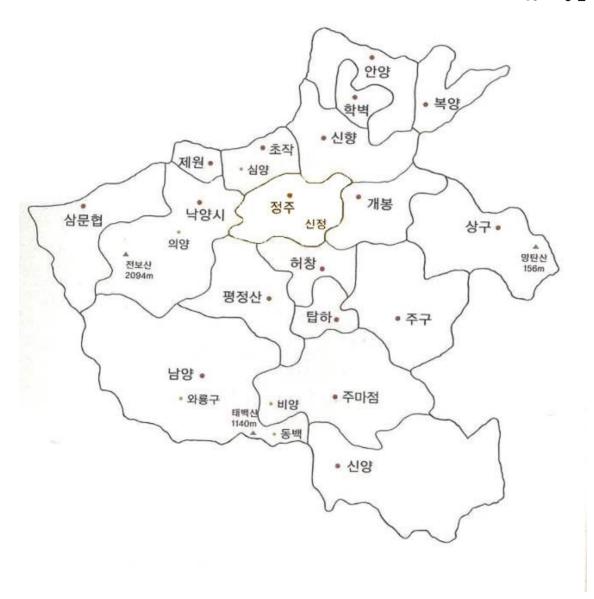
뭐, 이것이 아니라도, 적어도 모두가 역할을 나누어 답사지라는 하나의 성과를 만든 과정 만으로도 이미 큰 성과이지 않은가? ^^ 난 우리 친구들의 이 아름다운 참여에 큰 박수를 보 낸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내는 하모니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 그렇기에 그들과 또 한 번 의 길 떠남에, 나는 가슴이 벅차오른다. 아! 또 벌써 행복하다.

백광글

목차

| 들어가는 말 | 4 |
|---|----|
| T 조그 그무에서 여자 모면은 마니다 | |
| I. 중국 고도에서 역사, 문명을 만나다 1. 하남성 ··································· | Q |
| 표. 답사지역 조사 | 9 |
| 파. 급시시크 고시 1. 정주 ··································· | 11 |
| 2·7기념탑, 공현석굴 ···································· | |
| 2. 등봉 ··································· | |
| 소림사 | |
| 도 B 기 | |
| <읽을거리> 소림사의 상품화, 관련기사 | |
| 삼황채 (중국 오악의 중심 중악숭산) | |
| 3. 낙양 ··································· | |
| 낙양, 낙양가람기, 안사의 난, 주요볼거리 | |
| 관림 | |
| 용문석굴 (북위석굴, 당나라석굴, 향산사, 백원) | |
| <읽을거리> 두보, 이백 | |
| 천차가육박물관, 여경문 (수석) | |
| 낙양민속박물관, 백마사 | |
| 고묘박물관, 낙양박물관 | |
| 4. 개봉 ······ | |
| 용정공원, 한원비림, 대상국사 | |
| <읽을거리> 수호전 | |
| 청명상하원 | |
| 철탑공원 (천하제일탑) | 50 |
| 개봉부, 포공사 | |
| <읽을거리> 포증은 누구인가?, 포공과 민간신앙 | 55 |
| 우왕대 (사광, 우왕, 우왕과 치수) | |
| 송도어가, 개봉의 먹을거리 | |
| 皿. 답사를 떠나기 전 | |
| 답사를 준비하며 | 64 |
| IV. 찬고무허 | 67 |

| | - |
|--|---|
|--|---|



하남성을 찾아

하남성(河南省)은 중국 중부의 동쪽, 황하 중하류에 위치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이 황하이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남(河南)'이라고 한다. 예로부터 '중주(中州)', '중원(中原)'이라 불렸는데, '예주(豫州)'라고도 했으므로 '예(豫)'라고 약칭한다. 동쪽으로 산동, 안휘, 북쪽으로 하북, 산서, 서쪽으로 섬서, 남쪽으로 호북 등 여섯 개의 성과 인접해 있다. 서북쪽, 서쪽, 남쪽 삼면이 산으로 에워싸여 있으며 동부는 넓은 평원이다. 총 면적 약 17만 제곱킬로미터 가운데 산지와 구릉 지역이 약 44.3퍼센트, 평원이 약 55.7퍼센트를 차지한다. 이곳에 중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하남 사람은?

하남성에 살고 있는 인구는 약 9,800만 명에 달한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67명 가운데 한 명은 하남 사람인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들이 타지에서 사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려고 할 때면 어김없이 지역차별의 고통을 겪는다고 한다. 심지어 집을 얻거나사람을 사귈 때도 말이다. 물론 이것은 엄청난 편견이지만 이 편견이 중국인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지고 그 장본인이 '하남인'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기존의 편견은 더욱 강화된다. 대체 이런 편견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충[窮: 가난할 궁]', 중국어로 '가난'을 가리키는 말이다. 바로 이 '가난' 때문에 중국에서 가장 추악한 하남인의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지독하게 가난해서 생존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타지에서 온갖 멸시와 불이익을 감내하며 살아야만 하는 하남인들은 하남성이 중국의 축소판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인구가 많고 농촌 비율이 높다는 점, 거기에다 급속한 시장경제화와 더불어 온갖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점에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면 결국 하남인에 대한 중국인의 멸시는, '자기 멸시'의 시선을 특정 지역에 몰아서 투사한 것에 불과하다. 전지구적 자본주의 체제에서 중국에 그 시선을 내재화해서 자신의 일부를 타자화한 하남성에 전가한 것이다. "하남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라고 어느 중국인이 말하더라도 직접만나보기 전에는 절대 그 편견의 그물에 갇히지 말아야겠다.

신화와 전설, 역사의 향기가 넘치는 곳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인이 멸시하는 이 하남성은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중화문명의 발상지이다. 신석기 시대의 배리강문화(裴李崗文化)¹⁾를 비롯하여 앙소문화, 용산문화가 하남성에서 꽃을 피웠다. 그리고 안양, 낙양, 개봉 등 여러 왕조들의 도읍지였던 유서 깊은 지역들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역사 문물이 존재한다. 그래서 중국의 역사학자들은 하남성을 '중국역사박물관'이라고 한다. 이런 호칭에 걸맞게 하남에는 은허박물원, 낙양박물관, 정주박물관, 하남박물원 등 중국의 주요 박물관을 비롯하여 춘추시대 최대의 거마갱(車馬坑)²⁾이 있는 괵국박물관, 한나라 때 무덤에서 나온 화상석을 볼 수 있는 한화관처럼 특색 있는 박물관도여러 곳 있다.

하남에는 중국인의 시조로 불리는 황제(黃帝)의 고향도 있고 심지어는 천지개벽의 신 반고의 유적지도 있다. 기나긴 세월 동안 하남에서는 노자, 장자, 장형, 두보, 백거이, 악비 등수많은 명인들이 배출되었다. 중원 땅의 심장부인 하남에 가면 신화와 전설과 역사의 향취에 흠뻑 빠져들 수 있을 것이다.

¹⁾ 중국의 하남성 황하[黄河] 유역에서 기원전 7000년에서 기원전 5000년 무렵에 존재했던 신석기시대 초기의 문화이다.

²⁾ 중국의 고분(古墳)에서 수레와 말[馬]을 부장(副葬)한 수갱(竪坑)

1. 정주 [鄭州 Zhèngzhōu]

08 권미나 박현주



하남성의 성도인 정주(鄭州)는 35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중국 8대 고도(古都)의 하나로 도심과주변에 풍부한 문화유적이 있다. 원래 하남성의 성도는 개봉시였으나 철도교통의 요지라는 이점 때문에 1954년 이곳으로 옮겨졌다. 주변의 공의시(鞏義市), 신정시(新鄭市), 신밀시(新密市), 등봉시(登封市), 형양시(滎陽市), 중모현(中牟縣) 등을 관할하고 있다.

정주의 특징은 중(中), 통(通), 상(商), 고(古), 록(綠)의 다섯 글자로 요약된다. '중(中)'은 중국의 중심이 하남성이며, 정주는 '그 중에서도 중심지'라는 뜻이다. 하남성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북으로는 황하, 서로는 중악인 숭산(崇山), 동남으로는 황회(黃淮)평원과 이웃한 하남성 중부의 핵심부에 자리 잡고 있다.

'통(通)'은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라는 뜻이다. "정주를 지나지 않는 기차는 없다"고 할정도로 중국의 기차와 고속버스들은 이곳을 통해 중국의 동서남북으로 죽죽 뻗어나간다. 서쪽의 우루무치에서 출발한 열차는 이곳을 거쳐 동쪽 연해까지 뻗어가고, 북경에서 경광선(京廣線) 열차를 타면 이곳을 지나 남쪽의 광주(廣州)까지 간다. 이렇게 사방으로 '통'하는지역적 특성 때문에 정주에는 타 지역 출신들이 많고 외지인들에 대해 배타적이지 않다.

'상(商)'은 상업이 발달된 도시라는 뜻이다. 이곳은 옛 상나라의 중심지였고, '상인(商人)'이라는 말이 장사를 잘하는 상나라 사람을 일컫는 데에서 유래된 것을 보면 정주의 상업이 활발한 것이 우연은 아닌 듯하다. 1995년부터 정주에서는 1년에 한 차례 전국 상품교역회가 열리는데, 국내외의 많은 상인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룬다.

'고(古)'는 오래된 도시라는 뜻이다. 정주는 상나라 이전부터 주나라에 이르기까지 1500년 역사의 중심무대였던 곳으로, '용의 고향(龍的故鄉)'이라는 별칭이 있다. 고도의 명성에 걸맞게 부근에는 황하문명의 기원과 발전을 살펴 볼 수 있는 오래된 유적들이 가득하다.

'록(綠)'은 녹지가 전체의 42%를 차지하는 푸른 도시라는 뜻이다. 중국 전체가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점에 이렇게 녹지를 보호하고 있는 것은 큰 자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7 기념탑(二七記念塔)

정주시내 중심 2·7 광장에 우뚝 서 있굴는 2·7 기념탑은 1923년 2월 7일에 있었던 철도 노조의 파업투쟁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탑으로, 5각 기둥 두 개가 연결된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다.

2·7 기념탑은 1923년 2월 7일 군벌의 탄압에 항의한 철도청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을 기념해 1971년 9월에 만들어졌다. 철도청 노동운동은 중국 철도의 중심지인 정주와 무한 두

곳에서 일어났으며 무한에도 2.7탑이 있다.

2·7 기념탑은 지하까지 포함해 14층이며 높이는 64m에 달한다. 중국에서 가장 높은 기념탑인 이곳에 올라가면 시내를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고 야경 또한 볼 만하다. 북쪽 한 모퉁이에 입구가 있고 나선형 계단이 있어탑에 오를 수 있다. 예전에는 정주시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 모두 올라가서 시내 구경을 하였으나 지금은 거의 올라가지 않는다고 한다.

주변 광장은 밤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 바닥에 물로 붓글씨를 쓰는 사람, 산책 나온 사람, 관광 객들로 붐빈다. 광장 근처에는 상점가가 형성되어 있어 제법 번화하다. 이렇게 화려한 시내 중심가를 조금만 벗 어나면 원나라 때부터 형성되었다는 오래된 골목인 호동 (胡同)이 아직도 시민들의 생활터전으로 남아 있어, 옛 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도시 정주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정주시 번화가에 위치한 이칠기념탑

◈ 공현석굴(鞏縣石屈)

공현석굴(躍縣石屈)은 하남을 여행하는 이들이 지나치기 쉬운 곳이다. 용문석굴이 워낙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다보니 공현석굴까지 볼 필요가 있을까 하여 여행코스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불교미술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는 꼭 방문해야 하는 곳 중 하나이며, 미술에 문외한인 사람이 보아도 그 아름다움은 용문석굴 못지않다. 오늘날에는 그냥 '석굴사'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공현석굴'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원래는 하남성 공현에 위치했다 하여 '공현석굴'이라고 했지만, 현재 이곳이 정주 공의시 (鞏義市)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정식 명칭이 '공의석굴사(鞏縣石屈寺)'로 바뀌었다. 공의시 중심에서 2.5km 떨어져 있으며, 시성 두보의 고향으로 정주로부터 70km 떨어져 있다.

공현석굴은 용문석굴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지만, 작은 규모와 차분한 분위기 때문인지 조각들이 더 섬세하고 아름다워 보인다.

2. 등봉 [登封 dēngfēng]

08 권미나 박현주



중국 하남성(河南省) 정주(鄭州)에 있는 시(市)이다. 서남부 낙양(洛陽) 남쪽 약 50km, 숭산(嵩山)의 남록(南麓)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일찍이 한대(漢代)에 기원을 둔 고도(古都)이다. 진(秦)나라 때 양성현(陽城縣)으로 불렀다가 당(唐)나라 때 등봉현(登封縣)으로 개명하였다.

교육기관으로는 3개의 직업학교와 71개의 중·고등학교가 있다. 문화유적으로는 1,5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소림무술의 발원지 소림사(少林寺)를 비롯하여 숭산·중악묘(中岳廟)·숭양서원(嵩陽書院)·관성대(觀星臺)·숭악사탑(嵩岳寺塔) 등이 있다.

日出嵩山拗 일출숭산요 숭산위로 해가 뜨면

晨鍾驚飛鳥 신종경비조 새벽 종소리가 새들을 놀라게 하고,

林間小溪水潺潺 임문소계수잔잔 숲 속의 작은 개울물은 졸졸 흐르며,

坡上靑靑草 파상청청초 산기슭에 푸른 풀이 밝게 빛나네

▲숭산의 절경을 묘사한 시

소림사 [少林寺 Shàolínsì]

중국 중원 하남성(河南省)의 수도 정주(鄭州)에서 남쪽으로 1시간 반을 달리면 등봉(登封) 시가 나타난다. 등봉에 들어서면 "'중국무술성지' '세계문화유산' 소림사에 온 것을 환영한다."라는 큼지막한 환영 문구가 찾는 이를 맞는다. 한 해 평균 소림사를 찾는 관광객 수는 3백 만 명이다. 2009년 기준 등봉시 곳곳에 있는 무술학교는 83개에 달하고 수련 학생도 8만 명을 넘는다. 소림사를 보러 온 관광객이 지출하는 돈과 소림사 관련 산업에서 창출되는 재원은 등봉시 전체 재정 수입의 30%를 차지할 정도이다. 이처럼 소림사는 등봉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역사 유적이자 산업 자원이다.

소림사는 중국 선종의 본산이란 큰 명예를 지닌 천년고찰이다. 중국 하남성(河南省) 등봉(登封) 숭산(嵩山)에 위치한 소림사(少林寺)는 15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중국제1의 선종사찰이자 소림파 무술의 발원지이다. 소림사는 소실산(少室山) 숲속에 지은 절이라는 뜻이다.

소림사는 496년에 북위(北魏)의 효문제 (孝文帝)가 인도에서 온 고승 발타선사(跋



▲ 소림사 정문

跎禪師)를 위하여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달마(達磨)가 530년부터 9년간 여기서 좌선했다는 사실로도 유명하다.

유명한 소림사의 소림권법(少林拳法)은 달마(達磨)가 인도에서 들여온 행(行)의 일종으로 선숭(禪僧)의 수행법이다. 인도의 의성(醫聖) 기파(耆婆)가 연구한 경맥비공(經脈秘孔:인체의 급소)의 원리에 따라 발생한 이 격기(格技)를 불교에서 받아들여 발달시켰는데, 불교도들의 심신단련과 호신에 크게 도움이 되었으며, 소림사는 불교의 수양도량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중국 고유무술의 커다란 발원지로 그 명성을 세계에 떨쳤다.

1928년 군벌의 방화로 폐허가 됐던 소림사는, 지난 1985년 최고지도자 등소평이 복원에 관심을 쏟은 뒤로 중흥되고 있다. 또한 12년 전 30대 용신스님이 주지로 부임하면서 중흥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규모 공연시설을 세우고, 만 명의 학생들이 기숙사생활을할 수 있는 무술학원 등을 만들어 재원을 확보했고, 미주와 유럽에 무승들을 보내 백 개가 넘는 소림 무술원을 세웠다. 지금도 소림사 일대에서 5,000여명의 수련생들이 무술을 연마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림사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1980년 작, 이연결 주연의 영화 〈소림사〉는 할리우드에 진출하여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면서 전 세계에 소림사를 알린 중요한계기가 되었다.

◆ 탑림 [塔林 tǎlín]

소림사 서쪽으로 약 3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소림사 역대 승려들의 묘소이다. '탑림 (塔林)'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탑이 숲처럼 들어서 있다. 소림사 출신의 고승들의 사리탑을 모아 놓은 일종의 공동묘지이다. 각사리탑은 높이와 모양이 다양하게 건축되었다. 한때는 600여개 정도가 있었다 하지만현재 남아있는 것은 230개 정도이다.



▲ 탑림

◈ 소림권법

소림무술의 시초는 달마대사가 면벽수련을 하는 승려들의 건강을 위해 5가지 동물의 움직임을 본 따서 만들었다고 전해지며 현재는 중국무술의 대명사로 통한다.

소림권법은 달마대사가 소림사에 온 후 절을 보호하기 위해 연마를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용, 호랑이, 뱀, 표범, 학 등의 동물의움직임을 관찰해 만든 용권, 호권, 사권, 표권, 학권 등 5대 기본권법이 알려져 있다.

소림권법은 다른 권법에 비해 절도 있고 힘이 넘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쿵푸의 전설 이소룡은 뱀과 학의 싸움을 보고 만든 영춘권을 배웠고 훗날 이를 바탕으로 절도권을 만들었다고 한다.



▲ 소림사 스님들이 손가락 으로 뚫었다는 나무 구멍

◈ 소림사와 달마

인도 고승 달마(達磨)대사는 530년부터 9년간 소림사에서 좌선했다고 전해진다.

달마는 남인도에 위치한 한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다. 인도 선불교의 28대 조사였던 달마는 520년경 중국에 건너와 선종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독특한 불교이론과 좌선수행법으로 큰 명성을 얻었고 남조 황제 양무제와 만나 선문답을 하기도 했다.

527년경 북위로 온 달마는 숭산의 한 동굴에 들어가 9년간 면벽(面壁: 벽을 마주 대하고 좌선함) 참선수행을 했다. 달마는 면벽 수행 과정에서 맹수와 화적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호신술을 익혀 나갔다.

벽을 향해 가부좌를 틀고 앉아 수행하는 참선법과 호신술은 중국인 승려 도육(道育)과 혜가(慧可)에게 전해져 중국 선종과 소림무술로 꽃피게 됐다. 이를 통해 달마는 동아시아 선종의 교조로, 소림무술의 창시자로 전 세계의 추앙을 받게 됐다. 달마가 면벽참선한 달마동은 불교도와 무술인의 영원한 성지로, 찾는 이가 끊이질 않고 있다.

달마도를 보고 궁금해지는 이야기 - 면벽달마(面壁達磨) 달마대사는 눈꺼풀이 없다?

달마대사의 모습을 선숭들에 의해서 선종화하여 그림으로 그려낸 것이 달마도이다. 달마도를 보면 공통적으로 부리부 리한 두 눈이 툭 튀어나올 것 같이 부릅뜨고 있고 하늘을 올려보고 있는 듯한 작은 눈동자가 특징이다. 달마대사는 선 한 행위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숭 산 소림굴에 들어가 벽을 마주하고 앉아 9년 동안 잠도 자 지 않고, 용맹정진하며 불법을 수행한다. 그러나 선정(禪定) 중에 계속 잠이 오자 이를 이겨내고자 절대 눈을 감을 수 없도록 속눈썹을 모조리 뽑고, 눈꺼풀은 손톱으로 잘라내 버 렸다고 한다. 이 때문에 달마도 안의 달마대사는 눈꺼풀이 없어 크고 부리부리한 눈으로 그려지게 된 것이다.



즉, 불법수행에 방해되는 수마(졸음이 오는 것)를 쫓기 위한 달마대사의 법력이 담긴 것이 달마도이며, 그 중에서도 면벽달마에 잘 드러나 있다.

◈ 선종 소림음악대전 (禪宗少林音樂大典)

등봉시 관광의 으뜸으로 선종소림음악 대전을 꼽을 수 있다. 중국의 5대 명산 중 하나인 숭산의 야외무대에서 펼쳐지는 공연으로, 해발 1400m 협곡의 나무와 물과 돌을 무대 삼아 빛과 음악을 통해 선종의 정신과 소림사의 무술세계를예술로 승화시켰다. 소림무술을 활용한관광 상품으로 600여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매일 밤 공연하고 있다.



선종소림음악대전의 주요 무대는 협곡

지대로 산 주변에는 다양한 경관이 이루어져 있으며 협곡 내에는 계곡, 삼림, 석교 등이 있으며 실물 연출 요소를 구성하고 있다. 전반무대 크기는 약 3km에 달하고 최고 해발고도는 1,400m로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실경 무대이다.

관람석은 나무회랑 및 다양한 건물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선종소림음악대전은 수악, 목악, 풍악, 광악, 석악 등 5개 부분으로 구성되었고 연출규모 가 크며 약 600명의 소림무술자 및 소림승려들의 현장 찬송과 사계절 경관변화 및 불교음 악을 바탕으로 중악 숭산의 휘황찬란한 이미지를 구현하고 있다.

불교 선종의 교리를 기본 줄거리로 소림무술, 중국 전통 음악 등을 조합하고 영화 '와호 장룡'으로 미국 아카데미 음악상을 수상했던 담돈을 비롯해 중국 최고의 연출진이 투입돼 화려한 공연을 선사한다.

산봉우리의 한 면 전체와 계곡, 실제 건물들을 그대로 활용한 거대한 야외 세트는 그 규모면에서 관객을 압도한다. 스타 배우나 치밀한 줄거리는 없어 보이지만 소림무술과 중국의 문화적 자원들을 모아 만든 이 공연을 통해 중국의 독특한 문화자원 활용방식을 엿볼 수 있다.

선종은 역대의 체험이나 교리는 참고만 하고 자신의 깨달음으로만 해탈이 된다는 것, 즉하나의 의문에서 모든 걸 깨닫는 것이 곧 삼라만상의 모든 걸 꿰뚫을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음악은 선종이념을 표현하는 좋은 형식의 하나이다. 선종소림음악대전은 대자연의 각종소리와 교묘하게 결합하여 시청각의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

왜 소림사 스님들은 한 손으로 합장할까?

어느 날 '혜가'가 수련을 하고 있는 달마대사를 찾아왔다. 혜가는 자신을 제자로 받아 달라고 청했고, 달마대사는 이를 냉정하게 거절했다. 하지만 포기를 않은 혜가는 달마대 사로부터 하늘에서 붉은 눈이 내리면 제자로 받아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고, 고민 끝 에 혜가는 눈이 내리던 날 달마대사의 앞에서 자신의 왼쪽 팔을 잘랐다. 팔이 잘려나간 부분에서 피가 떨어져 바닥의 눈이 붉게 되니 붉은 눈이 내린 것이다. 달마는 그런 혜가 의 의지에 감탄해 그를 제자로 받아들였다.

소림사의 스님들이 합장을 한 손으로 하는 이유는 이 일화로부터 비롯한 것으로, 혜가 스님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의 피를 기억하기 위해 붉은색의 승복을 입 는다고 한다.

■ 읽을거리 ■

소림사의 상품화

- 소림사의 상품화는 지역 정부와의 합작품

493년 남북조 시대에 건립된 이후 호국 사찰로 명성을 드높인 소림사이지만, 오늘날 남아 있는 옛 역사 유적은 그리 많지 않다. 긴 세월의 억접 속에 네 차례의 큰 화재를 겪으면서 사찰이 모두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문화대혁명 말기 중국 정부는 달마동, 탑림(塔林)을 보수하고 대웅전을 새로 지어 1979년 대외에 개방했다. 사회주의 정권 수립 후 개방된 첫종교 시설이었다. 그해 소림사를 찾은 방문객은 9만2천명에 불과했지만, 영화 〈소림사〉가 개봉되면서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영화배우 이연걸이 주연한 〈소림사〉는 이른바 소림 무술 신드롬을 일으키면 1982년에는 70만 명이 중산을 찾게 했다.

소림사의 상품 가치에 주목한 지방 정부는 돈벌이에 적극 나섰다. 등봉 시는 홍콩의 중여 그룹과 공동 출자하여 '강중여(港中旅) 숭산 소림문화 관광회사'를 설립했다. <선종소림 음악대전>은 강중여가 투자한 대표적인 문화상품이다. 장예모(張藝謀)와 담돈(潭盾)이 연출한 <선종소림 음악대전>은 숭산의 자연 계곡을 배경으로 선종과 소림무술을 다채롭게 형상화한 대형 버라이어티 쇼이다. 6백여 명의 출연자가 벌이는 각기 다른 노래와 춤은 최첨단 조명 기술이 더해져 관람객을 매혹시킨다. 2008년 초연한 이래 지금도 매일 밤 수천 명의 관객을 끌어 모으고 있다

돈벌이의 선두 주자는 뭐니 뭐니 해도 소림사 자체이다. 초창기 소림사는 중국 정부의 재정 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다. 하지만 1997년 영리법인을 설립하면서 공격적인 비즈니스를 전개했다. 소림사는 법인 설립과 함께 '소림' '소림사'라는 상표를 2백여 개의 항목으로 등록했다. 이를 통해 만화영화 및 온라인 게임 〈소림전기〉를 제작한 타이완의 중영그룹으로부터 해마다 상표권 사용료 수십만 위안을 거둬들이고 있다. 〈선종소림 음악대전〉 제작사에게서도 저작권료를 받으면서 정무단 소속 무승을 출연시키고 있다. 소림사 정무단은 무술 공연을 위한 전문 무술팀으로, 중국 전역과 해외에서 열리는 다양한 공연에 나가 돈을 벌어들인다.

소림사는 종교 시설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지난 10년간 11개 사찰을 소림사 분원으로 가입시켰다. 북미와 유럽 등 해외에도 40개의 지사를 두어 수백 개의 무술 도장과 명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수년 전부터 한 제약회사와 함께 각종 의약품까지 제조해 판매해오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기능성 차와 목욕용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소림약국'이라는 상표까지 등록했다. 상표평가심사위원회가 '의약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라며 제동을 걸었지만, 스융신 방장의 의지는 확고하다. 지난 1월 베이징의 '문화산업 신년 포럼'에서 스 방장은 "우리는 상업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전파하는 것이다"라며 소림사의 사업 확장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중력을 거스르는 자?



소림사의 수련모습의 사진이 공개되었는데 중력을 무시한 채 수직 상태의 벽을 자연스레 걷는 무승의 사진이 화제다. 해외사이트에 소림사 승려들의 수행 모습을 촬영한 흑백 사진이 공개되었다. 폴란드 출신의 유명 사진작가 토마스 과조바티가 촬영한 사진으로, 최근 '소림사'라는 사진 에세이로 출판되었다.

(2012. 01. 18. 이데일리 세계 기사)

영화가 현실로

영화 방영 후 거친 중국 축구를 빗대어 사용된 '소림축구'가 현실로 이뤄질 전망이다. 2011 3월 23일(이하현지시간)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소림사 산하 무승 훈련기지에서 지난해 11월, 실제 무술을 배운 1000여명중 축구에 관심 있는 10세 전후어린이 40여명을 선발했다고 전했다.

더구나 카메룬 전 국가대표 출신의 차미 코치까지 영입해 축구계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차미 코치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소림 少林寺欲打造"少林足球" 功夫惊人球技了得(图)
2011年03月23日 08:54:43 来源: 新华网 [字号 大小] [收缩] [打印] [美闭]

新华 [四]

WWW.NEWS.CN

사의 쿵푸가 학생들을 아주 강하고 기교 있게 만들어줬다. 축구를 배우기에 매우 적합하다" 며 호평했다.

소림사측은 이번 축구부 운영이 일시적인 흐름이 아닌, 장기적으로 중국 축구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다. 무승 훈련기지 관계자는 "무술은 축구와 공통점이 있다. 학생들이 축구를 배우는 것에 무술 정신이 곁들여지면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1. 03. 26. 스포츠 서울 기사)

삼황채 [三皇寨 SānHuángzhài]

삼황채는 중국 오악 중에서 중악인 숭산의 소실산에 자리 잡고 있으며, 유명한 소림사 와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 치한다. 등봉 시내와 약14km 떨어져 있으며, 숭산국가삼림 공원의 중요풍경구로 소위 중 국의 '그랜드 캐년'이라 불린 다.



은 별로 없지만 푸른 나무들 서 보는 절경은 매우 뛰어나다.

삼황채의 거대한 바위는 숲 ▲ 깍아지른 절벽에 만들어진 돌계단 잔도, 아슬아슬해 보이는 길 위에

이 이끼 낀 듯 사이사이에 섞여 있으며 지질은 대부분이 석영암(石英岩)으로 옅은 회색을 띠고 표면은 거칠다. 마치 세로로 주름을 잡아 놓은 듯 접혀 있다. 바위가 이런 모양이 된 것은 수 억 년의 세월을 거쳐 오면서 지각변동으로 지층이 갈라지며 어긋난 때문이다. 이를 단층(斷層)이라고 한다. 그 형성과정이야 어찌되었든 직립으로 세워진 거대한 바위와 웅장 한 협곡은 가히 신(神)들만이 살았을 법하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그들이 인류시조라고 믿는 복희, 신농, 수인 삼황(三皇)이 이곳에 머물렀다고 생각한다.



▲ 소림사에서 삼황채 가는 길

삼황(三皇)

전국 시기에 이르러 나타나기 시작한 중국 고대 전설의 세 임금으로 여러 가지 설이 전해 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불을 발명하고 화식하는 법을 알게 한 수인씨, 사냥 기술을 창안 한 복희씨, 농경을 발명한 신농씨로 알려져 있다.

◈ 중국 오악(五岳)의 중심 중악숭산(中岳嵩山)

고대 중국인들은 높고 큰 산을 '악(岳)'이라 칭하였으며 중국에는 중국을 대표하는 5대 명산이 있는데 모두 중원에 있다고 하여 중원오악(中原五岳)이라 부른다. 그 가운데 중악(中岳)이라 꼽히는 명산이 바로 하남성 등봉시에 위치한 숭산(嵩山)이다. 태실산(太室山)과 소실산(小室山)으로 이루어진 숭산은 동서로 길게 누워 중원 땅을 바라보는데 동서 길이가 75km나 된다. 기원전 770년 주나라 평왕이 수도를 낙양으로 천도한 뒤, "중앙은 숭산, 좌는 태산, 우는 화산"이라고 하여 '천지의 가운데'인 '중악'이 되었다고 한다.

숭산에는 유, 불, 도 세 종교가 다 모여들었기 때문에 불교 사찰과 도교 사원 및 유교 서원이 밀집해 있다. 숭산은 또한 자연풍경이 빼어나게 아름다운 것으로도 유명한데, 태실산과 소실산에 각각 36개 봉우리가 있고 봉우리마다 독특한 풍광을 자랑한다. 소림사(少林寺), 중악묘(中岳廟), 숭양서원(崇陽書院), 관성대(觀星臺), 삼황채(三皇寨), 백사호(白沙湖)등이 둘러볼 만하다.

오악(五岳)

중원지방(中原地方)의 중심인 낙양 부근에서 보았을 때, 동쪽 산동성의 태산(泰山)을 동악(東岳), 서쪽 섬서성의 화산(華山)을 서악(西岳), 남쪽 호남성의 형산(衡山)을 남악(南岳), 북쪽 산서성의 항산(恒山)을 북악(北岳) 그리고 중앙인 하남성의 숭산(嵩山)을 가리켜 중악(中岳)이라 하였다.



3. 낙양 [洛阳 Luòyáng]

11 김보연 남동우 이아람이 장원준

산등성

안후이성

장쑤성



▲ 정주와 낙양 지도

예로부터 낙수의 양지에 자리 잡고 있다하여 낙양이라 불린 이 도시는 중국의 7대 옛 도읍(북경, 서안, 남경, 개봉, 항주, 안양)중 하나로 장안과 함께 많은 국가의 국도였다. 기원전 770년 주나라의 수도가 된 이래로 9개 왕조가 도읍을 정하였던 까닭에 '아홉 왕조의 도읍(九朝古都)'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런 많은 별명을 가지고 있는 낙양은 중국 하남성 서부, 황하 중류에 위치하고 있다. 위치상 하남성의 중·서부지역으로 진입하기 위한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있는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전략적 요충지였다. 이런 이유로 낙양에는 많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로 인해 낙양의 사람들은 약탈을 피해 보물들을 땅 속에 묻어두는 풍습도 있었다고 한다.

과거 군사적인 요충지였던 낙양은 현재도 미사일·항공기지 등이 있어서 군사적으로도 중요시되며 분야를 막론하고 오늘날 중국의 주요 도시 중 하나로 성장했다. 부근에 석탄 및기타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삼문협(三門峽)댐³)의 수력전기를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점을 십분 활용해 정주와 더불어 하남성의 2대 공업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국 최대의 트랙터공장을 비롯하여, 베어링·유리·화학비료 등의 공장이 입지하고, 대규모의면방직 콤비나트4)가 형성되어 있다.

부근 농촌에서는 밀·옥수수·콩·목화 등의 농산물을 산출하며, 특히 봄에는 모란이 유명하여 관련 축제가 있을 정도이다. 교통에서도 농해철도[連雲港~蘭州]와 초지철도[焦作~枝城]의 교차점이며, 310·207국도와 고속도로가 지나고, 민항(民航)도 통하는 교통요지이다.

문화적으로는 선사시대부터 문화가 발달되어 양소문화(仰韶文化)5), 용산문화(龍山文化)6),

³⁾ 중국 하남성·산서성 경계부의 황하 중류에 있는 협곡.

^{4) (}러시아어: kombinat)서로 관련이 있는 몇 개의 기업을 결합하여 하나의 공업 지대를 이루어 생산 능률을 높이는 합리적인 기업 결합이다

⁵⁾ 중국 황하의 중류 지역에서 나타난 신석기시대 문화로서 노관태문화(산서성에서 발견된 가장 이른 시기의 신석기문화형태)의 특징을 계승하여 나타난 것으로 여겨지며 채도(彩陶: 무늬 질그릇)를 특징으로 한다. 이 시기의 각종 유물을 통해 농업생산력과 원시수공업이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⁶⁾ 중국의 황하 유역에서 신석기시대 후기의 문화로서 흑도(黒陶: 검은 질그릇)와 회도(灰陶: 재 질그릇)를 특징으

은(상)시대의 유적이 있다. 한편 낙양은 삼국지와 소림사의 주요 무대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주요 볼거리들이 다양한 도시이다.

◈ 낙양을 관통하는 중국의 역사

중국 역사상 여러 왕조의 국도였던 낙양을 가장 먼저 국가의 주요 도시로 채택한 것은 주나라였다. 기원전 11세기에 주나라 성왕이 동방경영의 기지로 축성한 데서 비롯되며, 당시에는 낙읍(洛邑)이라고 하였다. 그 뒤 기원전 770년에 주 왕조가 천도한 뒤 동주(東周)의국도로 번영했다.

한나라 시기에는 서기 25년에 국도로 정하면서 명칭을 현재의 낙양으로 변경하였고 도성의 규모가 남북 9화리(華里:1화리=0.5km), 동서 6화리였기 때문에 구륙성(九六城)이라고 하였다. 한나라 이후에 낙양을 국도로 삼은 나라는 북위로서 화북을 평정한 후, 493년에 효문제(孝文帝)가 산서의 대동에서 이곳으로 천도하여, 구륙성을 중심으로 시역(市域)을 동서 20화리, 남북 15화리로 확장하였다. 호수(戶數) 약 11만, 불사(佛寺) 1,378을 헤아렸던 당시의모습은 양현지의 《낙양가람기(洛陽伽藍記)》 7)에 기술되어 있다.

이어 수나라와 당나라는 각각 중국을 통일한 후 대홍성(大興城: 장안성)인 서경에 대하여 동경(東京), 동도라고 칭하고 낙양을 장안의 부도(副都)로 삼았다. 당나라 역시 부도로서의 낙양의 지위를 유지하여 동도하남부(東都河南府)라고 칭했다. 그런데 수·당시대에는 서쪽의 장안이 정치도시인데 비해 낙양은 경제도시로 대운하를 따라 수송되는 강남의 물자 집산지로 번영하였다.

이렇게 번영의 길을 걷던 낙양은 안사(安史)의 난이 일어난 뒤 쇠퇴하기 시작해 원·명·청 나라 때에는 지방 도시로 일관하였다. 중화민국 시대에 다시 그 명예를 회복해 한때 성도가 되었고, 1933년에는 남경[南京] 정부가 이전하기도 했으며 1948년에 시(市)로 승격하였다. 역사상 많은 나라들이 장안과 낙양을 국도로 삼았지만 두 도시의 특징에는 차이가 있다. 서 안이 정치의 도시였다면 낙양은 전국시대의 노자, 당나라의 두보, 이백, 백낙천 등 많은 문 인과 예술인이 이곳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예술의 꽃을 피웠던 예술의 도시였다.

◈ 낙양가람기

중국 북위의 수도였던 낙양에서 40년 동안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한 역사서이자 기행문이다. 547년 양현지가 낙양에 와서 성곽·궁실·사찰·탑·묘당 등의 붕괴된 모습을 보고 지난날의 영화를 회상하며, 특히 웅대하던 사찰의 쇠망에 크게 놀라 실제로 자신이 본 그대로를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이 책을 저술하였다. 낙양 성내로부터 성동·성남·성서·성북의 순서를 따라 그 구조와 고적 등을 상술하였고, 특히 주요한 대가람의 위치·사력(寺歷: 절의 역사)·외관 등 사찰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기록하였다.

이 책은 단순한 가람기라기보다는 당시의 낙양을 아는 데 귀중한 자료이며, 정치·풍속·인 사(人事)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을 간결한 명문으로 묘사하여 당시의 사회를 알기 위한 중요한 사료(史料)이고, 많은 전설이나 설화를 포함하고 있어 문학작품으로서도 높은 가치 를 지니고 있다.

로 한다. 이 시기에는 도구의 종류와 숫자도 많아져 생산의 효율성도 크게 높아졌고 가축 사육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모계 사회를 벗어나 부계 사회로 진입하였고, 사유재산이 출현하여 사회 내부의 빈부 격차와 계급의 분화가 뚜렷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⁷⁾ 중국 북위의 수도였던 낙양에서 40년 동안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한 역사서이자 기행문이다

◈ 안사의 난

755년 12월 16일부터 763년 2월 17일에 걸쳐 당나라의 절도사인 안녹산과 그 부하인 사사명과 그 자녀들에 의해 일어난 대규모 반란이다. 안녹산과 사사명의 첫 글자를 각각 따서 안사의 난이라고 하며 안녹산의 난 또는 천보의 난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당나라 말기 율령제의 변질, 균전제와 조용조의 변화, 부병제의 붕괴 그리고 환관과 외척들의 전횡과 부패로 인한 관리와 제도의 타락이 반란의 불씨가 되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수탈을 당하고 자립 소농민층은 해체되어 유민이 되는 결과를 맞이한다.

안녹산은 나라 이름을 연(燕)이라고 하여 칭제를 했다. 9년이라는 짧은 기간 존속했지만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전란 관때문에 전국의 인구는 293만 호로 13년 전의 890만 호에 비해 70%의 인구인 약 3600만 명이 줄어들었다. 이것은 전란으로 소실된 호적 체계 때문이기도 하였다.

결국 당나라는 조세 제도는 양세법, 군사 제도는 모병제로 바뀌었지만 이미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다. 수많은 반란 속에서 절도사 세력이 성장하였고, 중앙정부에서는 환관과 외척들이 권력다툼을 벌였다. 결국 875년 황소의 난을 거쳐 당나라는 절도사인 주전충에게 멸망하였다.

◈ 주요 볼거리

앞서 언급했듯이 낙양은 모란으로 유명한 도시여서 낙양모란꽃축제가 있고 소림사와 삼국 지의 주요 무대여서 관련한 볼거리도 많다. 또한 중국 최초의 불교사원인 백마사(白馬寺)·중국 미술사에 있어서 중요한 문화재로 꼽히는 용문석굴(龍門石窟), 이밖에도 천진교(天津橋)·관림(關林)·낙양고묘(洛陽古墓)박물관·모란(牡丹)·공원·백거이묘(白居易墓) 등 명승지가 많다.

낙양의 꽃-모란

누적된 역사의 흔적들로 가득한 낙양이지만 그 중에서도 놓치지 말고 꼭 봐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이른바 '낙양삼절(洛陽三絶)'이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는 용문석굴, 두 번째 는 수석, 세 번째는 모란이다. 낙양의 모란이 특히 유명한 이유는 이곳의 기후가 온화하 고 강우량이 적당해 모란의 품종이 다양하고 색도 아름답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당나 라 사람들의 모란 사랑은 유별났다. 집집마다 모란을 키우면서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특 이하고 예쁜 모란을 찾다보니 꽃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귀한 모란은 한 송이 값이 중산 층 열가구가 내는 세금과 맞먹을 정도였다. 일반적으로 모란을 그릴 때는 나비와 함께 그리는데 모란은 부귀를 뜻하고 나비는 사람의 나이 70~80세를 의미한다. 나비[접蝶]의 중국어 발음이 'die'이고 70~80세를 뜻하는 '질耋'자의 중국어 발음도 'die'이기 때문이 다. 모란에 나비를 그려 넣으면 '70~80세까지 부귀를 누리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다. 이만하면 충분히 좋은 의미 같은데 모란 옆에 나비만 있는 그림은 거의 없다. 모란 옆에는 나비뿐만 아니라 고양이까지 그려 넣기도 한다. 왜냐하면 고양이 [묘猫]의 중국 어 발음 'māo'가 80~90세를 뜻하는 '모耄'자의 'mào'와 발음이 비슷하여 이 세 가지를 그림에 그리면 '80~90세까지 부귀를 누리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80~90세까지 오래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다는 인간의 소망을 그림에 투영시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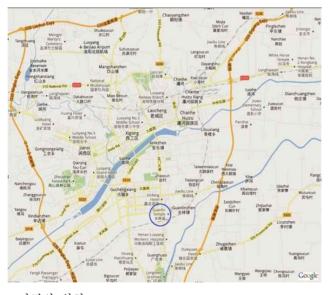
낙양의 모란꽃 축제는 1983년에 처음으로 개최되어 그 후로 일 년에 한 번씩 개최되었다. 모란꽃 축제가 열릴 정도로 낙양 시민들의 모란꽃 사랑은 대단하다. 이 때문에 모란꽃을 감상하는 것은 낙양 사람들의 오랜 취미이다. 매년 4월 모란꽃 축제가 개최될 때면 국내는 물론 해외의 많은 관광객들까지 낙양으로 몰려들고, 축제 기간에는 대형 문예공연, 꽃놀이, 서화, 사진전, 무역상담회 등이 개최된다.





▲낙양모란꽃 축제의 사진

관림 [矣林 guānlín]



▲관림의 위치

어릴 적 삼국지를 읽을 때 걸출한 여러 인물들 중에서도 계략과 전술 이 탁월한 제갈량과 주군에 대한 충 심과 인내심이 강한 관우를 가장 좋 아했고 나도 그런 총명하고 충직한 사람이 되기로 다짐했었다. 그런 내 가 관우의 묘인 관림을 간다고 하니 설레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도 그 에 대해 묘사한 어느 한 부분을 잊 을 수가 없다.

그는 어느 한 전투에서 어깨에 독화살을 맞는 부상을 당한다. 당시에는 마취제 같은 것이 없어 사지를 묶지 않고서는 환자가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것은 불가능

했다. 그러나 관우는 괜찮다고 하면서 의원에게 어서 수술을 시작하라고 명한다. 의원이 손을 떨면서 수술을 시작하는데 독이 묻은 어깨뼈를 칼로 긁어내는 수술로 인한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 쳐야할 관우는 정작 손을 떠는 의원보다 더 침착했다. 심지어는 바둑을 두며 수술을 받았다. 이 부분은 관우의 인내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이고 내가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이다. 또한 주군인 유비에 대한 변하지 않는 충성심도 깊은 감명을 주었다. 그는 손권과 조조의 극진한 대접과 회유를 거절하고 끝까지 유비에 대한 충성을 지켰다. 그런

데 관우가 번성에서 오나라 장군 여몽에게 패하여 살해되어 그의 머리만 조조에게 보내졌는데 조조는 충심이 깊은 그의 넋을 기리기 위해 바로 이 관림에서 장례를 치러주었고 수급을 묻어주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관림은 낙양에서 남쪽으로 약 7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입장료는 30원이다.

중국의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소원을 빌고 관우의 넋을 기리고 간다. 관우의 머리가 묻혀 있는 곳에는 두 개의 구멍이 나 있는데 중국인들은 오른쪽 구멍에 동전을 넣어 종소리



▲관림

가 나면 가정이 평안해진다고 믿고, 왼쪽 구멍에 동전을 넣어 소리가 나면 돈을 많이 벌 수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늘 동전 10개를 준비해오른쪽에는 동전 6개를, 왼쪽에는 동전 4개를 넣으며 복을 기원한다. 또 관림의 내부인 사당으로 가는 길 양 옆에는 해태상이 나란히 줄지어 서 있는데 이 해태 상에 개인의 소원을적은 붉은 종이를 걸어두기도 한다. 관림에서개인의 안녕을 위하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지만 향을 피워 관우의 넋을 기리는 사람들도 종종 볼 수 있다.

관림의 유래와 구성

중국에는 무덤마다 붙이는 칭호가 다르다. 일반 백성의 묘는 분(憤), 귀족의 묘는 총(塚), 황제의 묘는 능(陵)이라 하고 성인의 묘는 림(林)이라 한다. 수천 년 역사의 중국에도 림(林)은 오직 이림(二林)이 있을 뿐인데 바로 무성(武聖)으로 불리는 관우의 묘 '관림'과 문성(文聖)인 공자의 묘 '공림'이다.

관림은 대표적인 중국고대 건축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무루(舞樓)8), 정문, 의문(依



▲관우좌상

門)9), 용도(甬道), 배전(拜殿)10), 대전(大殿), 이전(二殿), 삼전(三殿), 석방(石坊)11)과 팔각 정(八角亭)이 중심선위에 분포되어 있고 관우의 능은 제일 뒤쪽에 있어 앞쪽에 사당이 있고 뒤쪽에 묘가 있는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그 중 중심 건물은 관우를 모신 대전, 높이 26m의 궁전식 건물로 유리기와를 쓰고 있고 대전의 중앙 위쪽에는 "기장숭고(氣壯嵩高)"라고 쓴 편액이 걸려 있다. 그 밖에 도원삼결의 (桃園三結義), 여포(呂布)와 세 번 싸운 이야기가 조각으로 펼쳐져 있다.

대전 중앙에는 6m높이의 관우좌상이 있는데 몸에 용포를 입고 머리에 왕관을 쓴 신성하고 장엄한 제왕의 모습이다. 대전의 위쪽 네 처마 귀퉁이에는 방견, 한신, 나성, 주

유의 조각이 있는데 이들은 배신하고 의리에 어긋나는 일을 한 것으로 하여 좋지 않은 사람들로 불린다. 여기에서는 그들이 관우와 선명한 대비를 형성, 관우의 정의로움을 더한층 돋보이게 한다. 이 외에 역대 묘지의 비석 등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실이 있고, 관우가 사용하였다고 하는 3m 정도 되는 칼도 있다.

중국에는 이곳을 제외하고 관묘가 두 개가 더 있다. 하나는 관우의 시신이 안장된 호북성 당양이고, 나머지 한 곳인 해주는 관우의 출생지로 관우의 의복 등을 묻어 놓았다. 이를 두고 "머리는 낙양을 베게삼고 몸은 담양에 누워 있으며 혼은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이 생겼다.

관우에 대하여

자(字)는 운장(雲長)이며, 원래의 자(字)는 장생(長生)이다. 시호(諡號)는 장목후(壯穆侯)이며, 수염이 아름다워 미염공(美髯公)이라고도 불렸다. 죽은 뒤 민간 신앙의 대상이되어 '관성제군(關聖帝君)'이나 '관제성군(關帝聖君)'이라고도 불린다. 간단히 '관제군(關帝君)', '관제(關帝)'라고도 한다.

그는 208년 적벽전에서 수군(水軍)을 인솔하여 큰 공을 세웠다. 이후 유비가 익주를 공략할 때는 제갈량과 함께 형주 수비를 위해 머물렀는데, 익주에서 군사 방통이 전사하고 고전하는 유비를 구원하러 제갈량이 출병하자 관우 혼자 형주를 방비하게 되었다. 당시 형주는 촉나라의 동쪽을 지키는 관문이었고 관우의 무력과 위풍은 조조와 손권도 두려워하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조조와 손권의 협격을 받아 패배하였다. 관우는 상용에 주둔하고 있는 맹달(孟達)과 유봉(劉封)에게 원군을 요청하였지만 거절당했고 마침내 사로잡혀 죽음을 당하였다.

관우는 소설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에서 충신의 전형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송 (宋) 이후로 관제묘(關帝廟)를 세워 그를 무신(武神) 또는 재신(財神)으로 모시는 등 중 국 민중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불교에서도 그를 호법신(護法神)의 하나로 받아들여 '가 람보살(伽藍菩薩)'로 숭배하기도 한다.

중국인들의 관우 숭배사상

중국인들의 관우 숭배사상은 대단하다. 상당히 현대적인 교육을 받은 중국인들도 관우에 대해 말할 때는 관우나 관운장이라고 하지 않고 관공이라고 높여 부르고 있다. 명나라 영락황제 등 위정자들이 정치적으로 관우를 높여 부르게 한 점도 있지만, 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를 시대의 영웅과 도덕의 모범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충의의 화신과 도덕의 본보기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대중의 존경과 절찬을 받고 있다. 이것에 힘입어 관우는 인격적인 매력을 지닌 역사인물로부터 세인의 존경을 받는 신령으로 변신하였다.

⁸⁾舞: 춤추다/樓: 다락, 망루

용문석굴 [龙门石窟 Lóngménshíkū]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있는 용문석굴

2009년 5월 11일자 「낙양만보洛陽 晚報」에 제2회 '중국인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곳'에 대한 심사 결과가 발 표 되었다. 이 활동은 300여 개의 명 승지나 관광지가 심사 대상에 올랐고, 중국 전역에 있는 TV방송국과 인터넷 방송, 신문, 잡지, 전문가 등이 심사에 참여 한 활동이었는데 낙양 용문석굴 이 2008년에 이어 2년 연속 '중국인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뽑힌 것 이다. 이렇게 중국인들도 가장 가고 싶 어 하는 용문석굴은 대체 어떤 곳일 까?

'낙양'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용문석굴을 보기 위해서는 용문협곡으로 향해야 한다. 용 문석굴은 낙양에서 12킬로미터 떨어진 용문협곡의 암벽에 자리하고 있다.

용문협곡은 북쪽으로 천천히 흐르는 이수를 가운데 두고, 동쪽으로는 향산, 서쪽으로는 용문산이 서로 마주하고 있어 멀리서 보면 천연의 요새에 있는 웅장한 문처럼 보인다. 그래서 춘추전국시대에는 용문석굴을 '이궐(伊闕)'이라고 불렀다. 그러면 언제부터 '용문'이라고 불렀을까?

'용문'이라는 지명에 대해서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다.

수양제가 낙양의 북쪽에 있는 망산에 올랐다. 그는 낙양이 남쪽에 있는 '이궐'을 바라보면서 시중들에게 물어보았다. "저것은 천자의 문이 아니더냐?" 선인들은 왜 이곳을 도읍을 정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던 것이다. 그러자 어떤 대신이 아침을 하면서 "선인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오라, 페하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리고 곧 낙양에다 동도성을 만들고, 황궁의 정문을 '이궐'과 마주보게 하였다. 그후로 사람들은 '이궐'을 '용문' 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산 좋고, 물 맑은 용문은 예로부터 교통의 요지이며, 기후 또한 사람 살기에 적합하여 많은 문인이나 묵객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었다. 당나라 시인 백거이는 "낙양 주변에서 산수가 아름다운 곳은 용문이 으뜸"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아름다운 산수와 더불어 이수를 중심으로 동서로 마주한 향산과 용문산은 석질이 좋아 조각하기에 알맞았다. 그러한 이유로 옛날 사람들은 이곳을 선택하여 2천여 개가 넘는 석굴을 만들었고, 크고 작은 불교 조상도 11만 여 존(奪)이나 만들었다. 용문석굴은 종교와 미술 뿐 만 아니라 건축·서예·음악·

9)依: 의지하다

10)拜: 절하다/殿: 전각

11)石: 돌/坊: 동네, 거처(居處)하는 방, 관청



▲용문석굴 배치도

복식·의약 등과 관련된 소중한 자료를 제공한다. 1999년 낙양시 인민정부는 2억 위안을 투자하여 용문석굴 주변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했고, 용문석굴은 2000년 11월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다.

용문석굴 중 북위시대의 석굴은 약 30%, 당나라 시대의 석굴은 약 60%, 기타 조대 는 약 10%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석굴은 대부분 서산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곳에는 일곱 개의 대형 도굴이 있다. 동산의 암층

이 서산보다 얇아서 대형 조각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북위 석굴

493년에 북위 효문제가 용문산에 처음으로 고양동을 축조하기 시작했다. 고양동에 있는 조상들을 살펴보면, 북위가 낙양으로 천도하던 초기에 황실귀족들과 궁정내인들이 봉헌한 불상이 많다고 한다. 북위시대 대표적인 불상은 빈양동에 있다. 부처님이 얼굴가득 미소를 머금고 있는데, 운강석굴의 불상보다 더 섬세하고 부드러운 모습에서 한층 세련된 표현 기법을 볼 수 있다. 500년에서 523년에 이르는 시기에 선무제와 효명제가 연속적으로 빈양동에 북동·중동·남동의 세 개의 석굴을 만들었는데, 이 석굴들을 축조하는데 24년이라는 오랜시간이 걸렸다. 동굴의 안쪽의 정면 벽에는 주불인 석가모니상이 있고, 좌우에 두 명의 제자와 보살이 있다. 동굴의 입구에는 서예가 저수량이 쓴 비명이 있다.

◈ 당나라 석굴

용문석굴을 가장 많이 축조하던 최고의 전성기는 당나라 때였다. 석굴 수의 60%를 점유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석굴들이 당 고종과 측천무후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 만들어진 것이다. 당나라를 대표하는 석굴로는 잠계사와 만불동, 봉선사가 있다.

- 잠계사 : 용문서산의 북단에 있는 가장 큰 석굴이며, 당나라 초기 작품이다. 천정에는 연 꽃 한 송이가 새겨져 있다. 주불인 아미타불이 불좌에 앉아 있는데, 신체 각 부분의 균형이 잘 잡혀 있고, 자상한 느낌을 준다.
- 만불동 : 석굴 안의 남북 양쪽에 15000여 개의 작은 불상이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작은 불상은 높이가 모두 4cm정도 된다. 만불동은 전실과 후실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실에는 두 명의 역사(力士)와 두 마리의 사자가 있고, 후실에는 부처님과 두 제자, 두 명의 보살과 두 명의 천왕이 있다.
- 봉선사 : 봉선사는 당나라 석굴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기세당당한 대노사나불이 이수 맞은 편 향산에서도 보일 정도다. 이 조상은 『화엄경』에 근거하여 마애식으로 불단을 만들고, 노사나불을 중심으로 보살과 제자들의 조상이 무리를 이루고 있다. 두 보살의 크기만 해도 70척이나 된다. 용문석굴에서 가장 큰 규모로 675년에 완공되었으며, 측천무후 자신도 2만 관(質)12)이나 기부하였다.

측천무후와 용문석굴

석굴축조는 측천무후시대에 가장 활발했다. 측천무후는 정권을 손에 넣기 전부터 불교와 인연을 맺고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불사에 앞장섰다. 그녀는 불당을 짓고 불상



▲측천무후 초상

을 만들어 봉헌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백성들에게 보이고자 했다. 용문석굴 빈양북동의 남쪽 벽에 아미타불상을 만들 때에도 측천무후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 용문석굴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최고의 예술적 가치를 지닌 봉선사의 노사나불상은 고종과 측천무후가 직접 참여하여 황실에서 축조했다. 이 불상은 여성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데혹자는 중국 여성의 전형적인 풍모를 지녔다고 말한다. 얼굴은 둥글고 눈썹은 가늘고 긴 초승달 같이 조각되었다. 노사나불의 표정은 엄숙하면서도 자상하고, 위엄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성스러운 분위기를 지니고 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노사나불이 바로 측천무후의 화신이라고 한다.

◈ 향산사 [香山寺xiāngshānsì]



▲향산사

향산사는 용문석굴의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고, 북위시대인 516년 건립하기 시작 했는데 원나라 말기에 소실되었다가 청나라 건륭황제에 의해 중건되었다. 향산사에서는 이하(伊河)를 굽어보는 아름다운 풍광도 만끽할 수 있다.

또한 향산사는 많은 인물들과 관련이 있는데 먼저 왼팔을 잘라 달마대사의 제자가 된 혜가(慧可)대사인데 그는 신광이라는 법명으로 바로 이 절에서 출가했고, 두 번째로는 무측천으로 그녀는 낙양에서 황제로 등극했을 때

주위의 풍경이 아름다운 이곳을 자주 찾아 군신들에게 시를 짓게 하여 가장 먼저 시를 지은 사람에게 금포를 내리기도 하였다.

¹²⁾ 옛날 엽전 1000개를 꿴 꾸러미

그러나 무엇보다 이 곳 향산사와 인연이 깊은 사람은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인 백거이(白居易)다. 그는 자신의 호를 향산거사(香山居士)로 지었을 만큼 향산사를 좋아했는데, 죽을 때까지 이곳에서 18년간 문필생활을 하였다. 백거이는 58세가 되던 829년에 낙양에 영주(永住)하기로 결심한 후, 태자보도관(太子補導官)이라는 직책에 자족하면서 시와 술과 거문고를 삼우(三友)로 삼아 지내고 있었다. 이 때 그는 퇴락한 향산사를 자신의 사재와 주위의도움을 얻어 증수를 한 뒤, 친구인 여만선사(如滿禪師)가 향산사의 주지가 되도록 도왔다. 그 후 백거이는 여만선사 등과 함께 승속(僧俗)의 9명이 향산구로시사(香山九老詩社)를 결사하고 그들과 함께 유유자적한 생활을 보냈다.

◈ 백원 [白園 bǎiyuán]



▲백원

향산의 용문교 왼쪽 산기슭에 자리 잡은 백거이의 묘인 백원은 백거이가 생전 하던 839년에 중 풍으로 고생하면서도 향산에 왕래하며 '취음선생전(醉吟先生傳)' 등의 작품 활동을 하던 곳이다. 용문산 석굴에서 용문교를 통해 이수를 건너면 바로 백거이의 묘에 이른다. 1961년에 국가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시선(詩仙) 이백이나 시성(詩聖)두보처럼 백거이 도 시마(詩魔)·시왕(詩王)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 다. 그는 이백이 죽은 뒤 십년, 두보가 죽은 뒤 이

해에 오늘날 신정에서 태어났다. 가난한 관리의 집 안에서 태어나 덕종 정원 16년 (800)에 29세의 젊 은 나이로 진사에 합격하였고, 그 이후 40여 년 동 안이나 관직생활을 했다. 벼슬길이 평탄치는 않았지 만 당파에 얽매이지 않았고, 일생동안 청빈하였으므로 오랫동안 관직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백 못지않게 술을 좋아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중국 문학사에서 백거이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원진과 함께 신악부운동¹³⁾을 전개했다는 것이다. 백거이는 문학이란 그 시대상을 반영해야 하며, 문학 자체를 위한 문학이 아니라 현실의 변화를 위한 문학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생동안 수많은 시를지었는데, 그 가운데 풍유시가 가장 유명하다.

백원은 청곡구·낙천당·시랑·묘체구·일본서법랑·도시 서옥 등 십여 곳으로 나뉘는데 건물들이 고풍스럽고



▲밴거이

년이 되는

¹³⁾ 신악부 운동 (新樂府運動) : 옛 악부시의 틀을 빌어 사회의 모순을 고발하고, 현실의 변화를 위한 문학을 주 장한 운동

소박하다. 산과 산 사이에 있는 청곡구에 들어서면, 폭포수가 쏟아지고 연못에는 백련이 향기롭다. 청곡구를 마주하고 낙천당이 있는데, 시인은 여기서 시를 구상하거나 친구를 만나기도 했다고 한다. 시랑에 있는 38개의 입석에는 중국 내외의 서예가들이 행서·초서·전서·예서로 쓴 백거이의 명시들이 있어, 시와 더불어 서예가의 작품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다. 백거이의 무덤은 비파봉 꼭대기에 있는데 비석이 가로 놓여 있고, 백거이를 흠모하는 사람들과 그의 후손들이 세운 입석이 있다. 무덤 주위는 흑백나무로 둘러싸여 있고, 무덤 앞에는 돌을 깔았고 뒤는 잔디로 덮여 있다. 우리나라 백씨 종친회에서 세운 기념비도 무덤 주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백거이와 「장한가」

「장한가」는 양귀비를 잃은 당 현종 이용기의 못 다한 사랑의 한을 묘사한 백거이의 장편 서사시로 7언 120구로 되어 있다. 「장한가」는 네 부분으로 되어 있다.

| 첫 번째 부분 | 현종과 양귀비의 만남에서부터 양귀비에 대한 현종의 지극한 사랑 |
|----------|---|
| ㅣ누 버째 무무 | 안녹산의 난 ¹⁴⁾ 으로 인해 피난 가는 길에 양귀비가 죽음을 당한 뒤 현종의 비통한 마음과 외로움 |
| 세 번째 부분 | 환도 후에 양귀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으로 밤을 지새우는 현종 |
| 네 번째 부분 | 현종이 방사의 환술로 선녀가 된 양귀비를 찾아가 사랑의 맹세를 확인하 는 장면과 애절한 사랑의 한 |

「장한가」는 발표하자마자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애송되었으며, 멀리 우리나라 와 일본에 까지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그 후 많은 희곡과 소설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지금도 화청지¹⁵⁾에 가면 〈장한가〉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¹⁴⁾ 현종이 양귀비에게 빠져 환관들과 외척이 정치에 관여하며 생겨난 권력다툼은 결국 안녹산의 난을 불러 일으켰다.

¹⁵⁾ 서안에서 35km떨어진 여산에 위치한 온천으로, 현종과 양귀비가 사랑을 나누던 곳으로 유명하다.

■ 읽을거리 ■

두보[杜甫 Dù Fǔ]



▲두보

중국 최고의 시인, 시성(詩聖)이라 불렸던 성당시대(盛唐時代)16)의 시인이다. 그는 본래 유가(儒家)로서 정치에 몸담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 결국 시인의 길을 가게 되었다. 두보가 처한 시대는 당나라가 찬란한 번영을 구가하다가 안사의 난을 맞아 제국의 붕괴위기를 맞았던 때였다. 그의 생애는 크게 보아 755년에 발발한 안사의 난을 중심으로 전 후반으로 양분된다. 안사의 난 이전, 그는 당대의다른 시인들처럼 독서와 유람으로 견문을 쌓아 착실히 벼슬에 나아갈 준비를 하였다. 24세 때 진사 시험에 낙방한 후부친을 따라 산둥에 가서 이백, 고적(高適) 등과 함께 자연을즐기고 시를 읊으며 친교를 돈독히 했다. 이후 두보는 거처를장안으로 옮겨와 고위 관리에게 벼슬을 구하는 간알시(干謁詩)를 써서 보내며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자 애썼다. 이

러한 생활이 10년간 지속되면서 두보는 점차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였고 당시 귀족들의 사치와 민중들의 궁핍한 삶에 대하여 절감하기 시작했다.

이 때 안사의 난이 발발하는데 당의 현종은 양귀비와의 사랑에 빠져 정치를 게을리 하여 국운이 쇠퇴하였다. 그 당시 나라의 형편을 읊은 장편 시 <영회詠懷>는 두보의 결작으로 유명하다.

諸葛大名垂宇宙(제갈대명수우주) 공명의 거룩한 이름 우주에 드리웠으니 宗臣遺像肅淸高(종신유상숙청고) 재상으로 남긴 창량이 맑고 드높아라.

三分割據紆籌策(삼분할거우주책) 중원, 세 나라로 나눔의 지론 우주 책을 드리웠고 萬古云宵一羽毛(만고운소일우모) 만고 밤하늘을 나는 고매한 한 마리 학의 깃이어라.

伯仲之間見伊呂(백중지간견이려) 세상 꿰뚫어 보심은 夏(하) 이윤 周(주) 강태공이리니 指揮約定失蕭曹(지휘약정실소조) 탁월한 지략 뇌리가득, 유방의 소하 조참을 능가하나.

運移漢祚終難復(운이한조종난복) 천운 다한 한실복원 끝내 돌이킬 수 없었으나 志決身殲軍務勞(지결신섬군무노) 운명의 그날까지 심신 바쳐 大漢(대한) 복원 힘쓰셨네.

▲영회

두보는 잠시 장안 근처 부주(鄜州)에 맡겨둔 가족을 만나러 갔다가 어린 아들이 먹지 못해 요절한 사실을 알고 참담한 마음으로 장편시 <장안에서 봉선으로 가며 회포를 읊어(自

¹⁶⁾ 시의 전성기였던 시대를 초당(初唐), 성당(盛唐), 중당(中唐), 만당(晚唐)의 4가지로 나눈 것 중에 하나로써 시문학이 가장 융성했던 시기이다.

성당 전반기에는 이백, 후반기에는 두보가 활약하였고 대표적 시인에 맹호연, 왕유 등이 있다.

京赴奉先縣詠懷五百字)>를 남겼다. 벼슬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자신을 돌아보고 당시 귀족들의 사치와 민중들의 궁핍한 처지를 그렸으며 총체적인 사회의 부패상을 고발했다.

이후 벼슬하리라는 희망을 끝내 놓을 수 없어, 768년에 협곡을 빠져 나가 강릉(江陵)을 거쳐 악양(岳陽)에 이르렀다. 이후 그의 생활은 주로 선상에서 이루어졌고 건강이 악화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운데, 악양과 담주(潭州)사이를 전전하다 뱃길에서 770년 58세로 일생을 마쳤다.

널리 인간의 심리, 자연의 사실 가운데 그 때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감동을 찾아내어 시를 지었다. 장편의 고체시(古體詩)는 주로 사회성을 발휘하였으므로 시로 표현된 역사라는 뜻으로 시사(詩史)라 불린다. 주요 작품에는 위 작품들에 더하여 〈북정(北征)〉, 〈추흥(秋興)〉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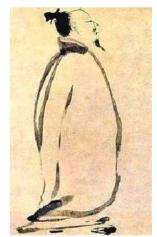
이백[李白 LǐBái]

두보와 함께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인으로 꼽히는 사람으로 자는 태백(太白), 호는 청련거사(靑蓮居士)이다. 시선(詩仙)이라 불리는 이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두보를 합쳐서 이두(李杜)라고 부른다.

이렇게 유명한 이백은 촉나라 사천성 출신인데 그의 아버지가 중앙아시아에서 장사를 하던 무역상이었기 때문에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25세나 26세까지 고향인 촉나라에서 살면서 동암자(東巖子)라는 선인과 사천성의 산들을 오르며 도교를 수양하였다. 25세나 26세에 고향을 떠나 강남(江南)을 여행하였으며, 아버지의 유산을 소비하며 몰락한 귀족의 자제들과 어울렸다.

724년 43세에 현종의 칙령을 받아 한림공봉(翰林供奉)이 되어 장안에 머물렀으나 관리의 따분한 생활을 견디지 못하여 44세에 현종의 측근인 고력사(高力士)와 다투고 사직하였다. 술을 좋아하고 따분한 생활을 싫어하는 그의 성격을 잘 나타내주는 일화로 술에 취해 있을 때 현종의 부름을 받고 그대로 궁전으로들어가 계속해서 시를 읊었다고 하는 일화가 있다. 사직 후에 낙양에서 산동까지 두보와 함께 여행하였다.

54세에 다시 강남으로 돌아와 56세에 현종의 열여섯 번째 아들인 영왕의 군대에 참여하였으나 그 군대가 숙종에 의해 반란 군으로 지목되어 이백도 야랑(夜郎:지금의 귀주성)에 유배되었다. 다행히 삼협(三峽) 부근까지 왔을 때에 은사를 받아 다시 강남으로 돌아왔다. 만년에는 강남의 각지를 유람하였고, 62세에 안휘성당도(安徽省當塗)의 현령(縣令)이었던 조카 이양빙의 집에



▲이백

서 사망하였다. 장강에 비치는 달그림자를 잡으려다가 익사했다는 전설도 있다.

고시(古詩)와 절구(絶句)가 특기인 이백의 시는 스케일이 크고 박진감이 넘친다. 그의 절구는 '신품(神品)'이라고 평해졌고, 그의 시재(詩才)는 천래(天來)의 재, 즉 '천재(天才)'라고했다. 또한 그의 시는 매우 자유로우며 많은 고민을 하지 않고 한 번에 시를 지었다고 하는데 동시대에 살았던 11세 연하의 시인 두보(杜甫)가 1자 1구의 조탁(彫琢)에 뼈를 깎는 고심을 기울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천자가육박물관 [天子駕六博物館 tiānzǐjiàliùBówùguǎn]

입장료: 30 元

교통정보 : 낙양역에서 하차한 뒤 왕성광장까지 도보로 이동



▲ 천자가육박물관의 상징 동상인 6필 마차

낙양역에서 대로를 따라 남쪽으로 곧장 걸어가면 왕성광장(王城 廣場)이 나타난다. 이곳은 낙양의 중심에 위치한 가장 번화한 곳이 다. 바로 이 광장에 유명한 천자 가육박물관(天子駕六博物館)이 있 다. 2002년 말 낙양시에서 왕성광 장을 조성할 때 우연히 지하에서 동주(東周) 시기의 묘 397기(基) 와 거마갱(車馬坑) 16기를 발굴했 는데, 그 유물 가운데 천자가 탔 던 수레가 발견되어 고고학계를 흥분시켰다고 한다.

『일례(逸禮)·왕도기(王度記)』에 의하면 "천자는 말 여섯 필이 끄는 두 대의 수례에 탑승하고, 제후는 다섯 필, 공경은 네 필, 대부는 세 필, 선비는 두 필, 백성은 한 필의 말을 각각 몰 수 있다."라는 엄격한 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발굴단이 여섯 필의 말이나란히 순장되고 수레 두 대가 놓인 유물을 보고 이른바 '천자가육(天子駕六)'의 증거임을확인했다고 한다. 수업시간에 숫자 六[liù]이 流[liú](흐를'류')와 발음이 같다하여 중국에서좋은 숫자로 여긴다는 것을 배운 적이 있다. 이처럼 고대에도 六이 황제를 상징하는 숫자였다고 하니 숫자 六의 좋은 의미는 나름대로의 정통성을 가진 것 같다.

이 박물관은 광장의 지하에 위치해 있다. 거마갱에는 출토 당시의 거마들을 그대로 보존해 놓았고, 출토 된 유물 이외에도 동주시대의 청동기 유물 중 정선된 것을 골라 전시하고 있다. 박물관의 방침에 의해 박물관 내부의 촬영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유물과 유구들을 찬찬히 살펴보고 머릿속에 잘 새겨두어야 할 것 같다.

동주시대의 시작, 봉화희제후(烽火戱諸侯) 봉화를 올려 제후들을 희롱하다

지금의 낙양시 서공구 일대에 수도가 건립된 것은 동주(東周)를 세운 주평왕(周平王) 시기이다. 이때부터 기원전 256년까지 515년간을 동주 또는 동주시대라 부른다. 낙양으로 동천하기 전, 기원전 8세기 초까지는 주(서주)왕조의 천하였다. 서주의 마지막 주유왕은 '봉화희제후'의 사건으로 제후들에게 구원병을 요청할 수 없게 되었고, 서주 지역의소수민족인 견융의 침입으로 여산 기슭에서 피살되면서 서주도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봉화희제후'의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주유왕이 신나라 후작의 딸을 왕비로 삼았지만 나중에 포나라에서 바친 후궁을 사랑하여 그녀(포사)를 왕비로 삼고 기존의 왕비를



▲ '포사' 이미지

퇴출시켰다. 소설 열국지에서는 포사를 용의 침으로 잉태된 신비한 절세미녀로 소개하고 있다. 포사는 우울증으로 잘 웃지 않았는데, 어느 날 신하가 실수로 불을 붙인 봉화에 달려온 제후들이 화를 내는 것을 보고 비로소 웃었다. 이를 본 주유왕은 신하들에게 매달 봉화를 올리도록 명을 내렸다. 봉화를 올리는 숫자가 늘수록 제후들도 점점 출전을 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한명도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한편 자기 딸을 박대하여 앙심을 품은 신나라 후작은 증나라 후작과 모의하여, 견융족을 끌어들여도성을 유린하고 주유왕을 죽였다. 그 후 신나라 후작의 딸이

낳은 아들 희선구(姬官臼)를 왕으로 삼으니 그가 바로 주평왕(周平王)이라고 한다.

여경문 [麗景門 lìjǐngmén]

입장료: 성곽으로 올라가려면 20元

교통편 : 낙양 시내에서 서관으로 가는 시내버스를 탄 후 서관 로터리에서 하차

여경문(麗京門)은 "낙양에 와서 여경문에 가보지 않았다면, 낙양 성은 헛 구경한 셈이다."라는 말 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성문이다. 수(隋) 나라 때 처음 축조된 성문 인데 낙양 고성(古城)의 서대문(西 大門)이었다. 수당(隋唐) 시대에는 여경문 안에 조정의 여러 성(省), 부(府), 아(衙), 위(衛) 등의 관청 들이 있었다. 내방(內房), 좌춘방 (左春房), 우춘방(右春房) 등은 관 리들이 거주했던 곳이다. 오른쪽 에는 큰 사원이 있는데, 관리들과 백성이 토지신과 곡신(穀神)에게 제사를 지낸 곳이라고 한다.



▲여경문(麗京門)의 정면

현존하는 여경문의 원형은 명청(明淸) 시대에 완성되었다. 그 후에도 파괴와 중건이 끊이질 않았는데 1945년에 일본군이 여경문에 백기를 내걸고 투항했고 장개석(蔣介石)의 국민당 군대도 이곳에서 포위되어 결국 항복했다. 2002년에 낙양시 정부에서 3천만 위안의 거금을 들여 지금의 여경문을 대대적으로 중축하였다. 이곳은 성문루(城門樓), 옹성(甕城), 전루(箭樓), 성벽, 여경교(麗景橋)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성문 곳곳에 수당성(隋唐城), 관음전(觀音殿), 삼신전(三神殿), 구룡전(九龍殿), 현양묘(賢良廟) 등의 현판들이 뒤섞여 걸려있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여경문은 중국 역사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화적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다.

여경문(麗京門)? 여경문(麗景門)? '서울 경(京)' 자가 '볕 경(景)' 자로 바뀐 이유

'여경(麗景)'이란 밝고 아름다운 햇빛을 뜻한다. 황제의 위업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햇 빛처럼 온 사방에 가득 퍼지길 기원하였던 이름이다. 그러다가 후대에 낙양 사람들이 낙 양이 천하의 수도(首都)임을 강조하기 위해 중건하면서 서울 경(京)자로 바꾸었다.

몇 년 전부터 이 글자를 바꾸는 문제로 낙양 시민들이 갑론을박을 벌였다고 한다. 결국 작년에 『당양경성방고(唐兩京城坊考)』에 "동도(東都: 지금의 낙양) 황성(皇城) 서면 (西面)에 두 문이 있는데 그곳에서의 남쪽에 있는 것을 여경문(麗景門), 북쪽에 있는 것을 선휘문(宣輝門)이라고 부른다."라는 기록에 근거하여 원래의 이름을 찾았다.

여경문 안으로 들어가면 시공을 뛰어넘은 옛날 거리가 나온다. 낙양에서 가장 낙양다운 곳이다. 상호를 알리는 깃발들이 어지러이 걸려있고, 낙양 의 대표적인 요리인 '수석(水席)'을 파는 집도 볼 수 있다. 수석이란 탕 요리의 총칭인데, 각종 야 채, 고기 등을 넣고 끓인 것이다. 수석, 목단(모란 꽃), 용문석굴을 낙양삼절(洛陽三絶)이라고 일컫기 도 한다.



▲여경문 안의 구시가(舊市街)

◆ 수석 [水席 shuǐxí: '물이 흐르는 자리']



▲낙양의 대표요리 '수석'

수석(水席)은 낙양 일대의 전통 있는 요리이다. 요리가 품고 있는 뜻은 첫째로 뜨거운 요리에는 전부 국물이 있다는 말이다. 둘째는 한 가지 요리를 먹으면 바로 다음 요리가 나온다, 즉 물이 끊임없이 흐른다는 뜻이다. 낙양 수석(水席)의 특색은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서 만들기 때문에 요리가 간단하면서도 복잡하고, 신맛과 매운맛, 단맛, 짠맛등이 모두 있어 입이 개운하다고 한다.

수석(水席)의 유래는 지리적 기후와 밀접 한 관계가 있다. 낙양은 사면이 산으로 둘러

싸인 분지 지역이라서 강우량이 적고 건조하다. 또한 기후가 낮아 과일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백성들은 국물이 있는 음식을 즐겨 먹었다고 한다. 먹을 때에 24가지 요리가 끊임없이나오기 때문에 요리가 물 흐르듯 나온다는 의미에서 水席(shuǐxí)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한다. 당나라 때부터 시작되어 1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 오랜 역사를 지닌 음식이나 꼭 먹어보고 싶은 음식이다.

낙양민속박물관 [洛陽民俗博物館 Luòyángmínsúbówùguǎn]

입장료: 15元

교통편: 46번, 10번 시내버스를 타고 九道路에서 하차



▲낙양민속박물관 정면

낙양민속박물관은 중국의 민간공예품, 자수나 은 장신구 등을 전시하고 있는 독특한 박물관이다. 중국의 문화양식 전반을 소개하고 있어 중국 문화를 간접 체험할 수있다. 원래는 노택회관이었는데 지금은 개조해서 민속박물관으로 쓰고 있다. 희루(戲樓), 대전(大殿), 상반(廂房) 등의 건물들이 있다. 건물 안에는 민속품들을 주제별로 다양하게 전시해 놓았다.

낙양민속박물관의 특색은 인형과 음악 등으로 중국인의 전통 결혼식 장면을 재구 성해놓았고, 옛날 전족(纏足)을 했던 중국

여성들이 신었던 신발 등을 전시해 놓았다는 점이다. 2011년 중국어문화학과 학술제 때 '역사적으로 중국 여성들에게 전족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발표를 들었던 터이기도 하고, 그동안 간접적으로 배워왔던 중국인들의 문화를 보다 가깝게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낙양민속박물관 앞에는 낙하(洛河)가 낙양 시내를 관통하여 흐르고 있다. 하남성(河南省) 은 이름그대로 황하(黄河)의 남쪽에 펼쳐진 곳 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고, 낙하는 황하의 지 류이다. 동서로 뻗은 낙하의 제방에 공원을 조 성해 놓았는데 이곳이 바로 낙포공원(洛浦公 園)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한강의 시민공원 같 은 곳이라 할 수 있다. 낙포공원의 가운데에는 TV 발사탑이 자리하고 있다. 이 공원은 강변 을 따라 길게 조성되어 있어 출입구도 여러 군데라고 한다. 왕성광장에서 남쪽으로 쭉 걸 어가도 낙포공원에 도달할 수 있다.



▲낙포공원

백마사(白马寺 Báimǎsì)

입장료: 50원

교통정보: 서관(西關)에서 56路 버스 타고 종점에서 하차, 낙양시내에서 58번 버스



▲ 백마사 입구



▲ 백마상

다.

절의 이름인 백마는 인도에서 파견했던 스님인 가섭마등과 축법란 일행이 백마(白馬)에 경전을 싣고 돌아온 것에서 유래되 었는데, 이를 기리는 의미로 절의 입구 양쪽에는 송나라 때 만 들어진 두 마리의 백마상이 서 있다. 백마사의 입구를 들어서면 정면에는 천왕전이 서있고 그 뒤로 대불전, 대웅전 등의 건축물 이 늘어서 있다. 대불전에는 무게 1.25t의 대철종이 있고 대웅 전에는 원대에 조각된 십팔나한상이 안치되어 있다. 또 절의 동

백마사는 '중국 제일의 사찰'이라고 칭해 질 만큼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백 마사가 창건된 것은 약 2000여 년 전인 후 한시대인데 이는 중국으로 불교가 전래된 후 건립된 최초의 사원이다. 즉, 백마사로 인해 중국에서 불교가 처음으로 인정받았다 고 할 수 있다. 결국 백마사는 중국을 통해 서 동아시아 전역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던

불교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

쪽에는 금나라 때 세워진 약 24m의 제운탑이 있는데 이 탑의 앞뒤에서 손뼉을 치면 개구리 울음소리를 닮은 메아리가 되돌아온다고 한다. 그리고 절의 안쪽 비로각에는 중국어로 최초 번역된 불경인 <佛说四十二章经>의 흔적이 남아 있다. 또한 인도에서 파견했던 가섭마등과 축법란이 거처했던 절이었기 때문에 인도풍의 건물을 종종 볼 수 있다.

백마사를 통해 알아본 절 사(寺)의 유래

관청 시(寺)가 절 사(寺)로 불리게 된 유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D67년에 인도의 가섭마등과 축법란이라는 두 스님이 흰 말에다 경전을 싣고 후한의 서울인 낙양에왔다고 한다. 그 때 후한에서는 외국인인 두 스님을 외국인을 위한 소속 관아인 홍려사(鴻廬寺)에 머물도록 하였다. 그 후 홍려사라는 이름을 두 스님이 타고 오신 흰말을 기념하여 백마사(白馬寺)라고 고쳐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바로 이 백마사가 중국 사찰의시초가 되었고 그 뒤로 중국에서는 불도를 수행하는 승려들의 거처를 사(寺)로 부르게되었다고 한다.

고묘박물관(古墓博物馆 gǔmùbówùguǎn)

입장료 : 무료

교통정보 : 낙양역에서 83번 버스를 타고 고묘박물관 앞에서 하차



▲고묘박물관 전경

낙양의 고묘박물관은 중국 유일의 고묘 박물관이다. 고묘박물관은 6세기 초 북위 의 황제였던 선무제의 무덤 옆에 세워진 박물관으로 이 일대를 '망산'이라 칭하며 옛 왕조, 귀족들의 무덤이 수없이 산재해 있다. 죽은 자가 묻히는 곳으로 대표되는 '북망산'이 바로 고묘박물관이 위치한 망 산의 북쪽을 가리킨다. 관내에는 다량의 옛 생활기구와 장식품 등 부장품과 서한, 위, 진 시기의 토용(순장할 때 사람대신으로 무덤 속에 묻던 사람모양의 흙 조각) 그리고 당삼채(낙양 귀족들의 장례용으로

많이 만들어진 도기로 백색 바탕에 초록, 갈색, 남색 등의 삼채 유약을 사용해 만듦) 등을 전시하고 있다. 박물관은 크게 지하와 지상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지상에는 백옥으로 만든 망루와 전시실, 사각루, 망경정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묘지는 실제로 무덤에 들어가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지하에 전시되어 있다. 지하에는 박물관의 핵심으로 서한부터 북송 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한 전형적 형태의 웅대한 옛 묘 25개가 자리 잡고 있

다. 옛 묘들의 발굴 당시를 매우 자세하게 재현해 놓았으며 옛날의 묘지나 벽화 등이 매우 정교하게 복원되어 있다. 특히 묘의 벽에 정교하게 그려진 벽화묘가 모여 있는 벽화묘군이 가장유명하다. 낙양의 벽화 역사는 매우 오래되어현재 모두 10개의 고벽화묘가 참관할 수 있는데, 서한의 "타귀도(打鬼圖)" 벽화묘, 서한귀족복천추(卜千秋) 벽화묘, 동한의 출행도(出行圖) 벽화묘 등이 그것이다.



▲타귀도벽화묘 내부 사진

낙양박물관(洛阳博物馆 Luòyángbówùguǎn)

입장료 : 무료

교통정보 : 낙양시 중심도로인 중주중로(中州中路 Zhōngzhōuzhōnglù) 에 위치. 도보 혹은 택시를 이용하면 손쉽게 찾을 수 있다. 낙양박물관은 '아홉 왕조의 도읍'(九朝古都)이라고 불리는 역사와 문화 예술의 고도인 낙양의화려한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박물관 내에는 악귀를 쫓고 사악한 기운을 물리친다는 석상인 석벽사 부터 원시 농경사회 때 사용되던 토기, 청동기를 비롯해 술잔, 벽화 그리고 당삼채(낙양 귀족들의 장례용으로 많이 만들어진 도기로 백색 바탕에 초록, 갈색, 남색 등의 삼채 유약을 사용해 만듦)까지 매우 다양한 유물들이 전



▲ 당나라 때 제작된 낙타모양 당삼채

시되어 있다. 아홉 왕조의 도읍이라고 불릴 만큼 유구한 역사와 그만큼의 방대한 문화를 자랑하는 낙양인 만큼 하·상대, 서주시대, 동주시대, 한과 북위시대, 수·당대에 이르는 긴 역사의 흐름을 따라 당대의 유물들이 시대별로 잘 정리되어 전시돼 있다. 특히 낙양박물관은 다량의 당삼채를 볼 수 있는 곳이다. 한국의 도자기와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으니 한국의 도자기와 비교해서 관람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4. 개봉 (开封 kāifēng)

09 장혜연 조경선 차한나 한가희

개봉의 옛 이름은 동경(東京) 으로 변량(汴梁), 변경(汴京), 간 략히 줄여서 변(汴)으로 불렸다. 개봉은 중국의 '8대 고도(古 都)17) 중 한 곳으로 문물과 유 적이 풍부하고 도시의 형성이 비교적 일러 고도의 모습이 농 후하다. 개봉에 도시가 생긴 역 사는 이미 2700년이 넘었으며 기원전 364년부터 서기 1233 년까지 전국시대의 위(魏), 오대



시기의 후량(後梁), 후진(後晉), 후한(後漢), 후주(後周), 북송(北宋), 금(金)의 7개 왕조의 수도였다. 그 중 가장 번영했던 북송(北宋)시대의 수도였던 개봉은 동경(東京)으로 정치, 경제, 군사, 기술, 문화의 중심지로서 세계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 중의 한 곳이었다. 개봉의 모습은 송나라 이후 봉건왕조의 수도건설에 표준이 되기도 했다. 그 당시에는 수공업과 상업이 발전했고, 지역 내외로 무역이 활발하여 "八荒爭凑, 万贾咸集"18)는 말까지 있다. 이 당시의 번화했던 개봉의 모습은 북송의 화가 장택단(張擇端)이 그린 거대한 그림 <청명상하도(清明上河圖)>에 생생하게 담겨졌다.

개봉은 중국 역사의 7개 왕조의 주요 도시이자 '**송나라의 수도'**답게 유구한 역사와 두터운 문화를 가지고 있어 중국의 유명한 관광도시이다. 2001년 중국여유국²⁰⁾이 선정한 우수여행도시이기도 하다. 개봉은 오랜 역사만큼 많은 유물과 유적이 있다. 또한 한(漢)나라 때부터 중화민국시기 까지 1,000여건의 석각 유물이 있어, 하남(河南)지역의 3대 석각(石刻)도시로 불리기도 한다.

'개봉'의 유래

개봉은 고대에는 "예주(豫州)"라 칭했기 때문에 약칭으로 "예(豫)"라고도 불린다. 또 예주는 구주(九州)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중주(中州)", "중원(中原)"이란 명칭도 있었다. 개봉이라는 이름은 춘추(春秋)시기에 생겨난 것이다. 정(鄭)나라 장공(莊公)이 중원으로 세력을 확장하고자 성의 남쪽 주선진(朱仙鎮)19) 부근에 곡식을 저장하는 성을 짓고, 이름을 계봉(啟封)이라 하였으나 이후 한나라 경제 유계(景帝 劉啟)때 황제의 이름에 계(啟)자가 들어갔기때문에 황제의 이름이 사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개봉(開封)으로 개명하게 된 것이다.

¹⁷⁾ 옛 수도

^{18) &}quot;八荒争凑,万贾咸集" bāhuāng zhēngcòu, wànjiǎ xiánjí : 근처에 있는 가난한 도시들은 모두 가까이하고 싶어 하고, 모든 상인은 모두 개봉에서 장사하러 모여든다.

¹⁹⁾ 중국 개봉시 하남성

²⁰⁾ 중국 여행사의 전반적 관리, 인허가, 행정 조치 등 우리나라의 문화관광부 업무와 외국에 대한 관광홍보, 내 외국인 관광통계, 박람회개최 등 우리나라의 관광공사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



▲개봉 시내 주요 관광지도

용정공원(龙亭公园 LóngtíngGōngyuán)

입장료: 40元

교통정보: 20번 버스타고 용정공원 역에서 하차

용정을 중심으로 한 정원 공원이다. 개봉에서 가장 큰 풍경구(風景區)로 면적이 25만평이나 된다. 용정 일대는 역대왕조의 왕궁의 터로, 일찍이 1000여 년 전에 당(唐, 618~907년) 나라 영평군 절도사²¹⁾의 관아였고, 후량(남북조시대)시대에는 이곳에 황궁을 짓고 건창궁(建昌宮)이라 하였다. 북송(北宋:960~1127년)때에도 이곳에 황궁을 지었다. 용정공원은 송대에 어원(御苑)²²⁾의 일부였으나 홍수로 파괴되었는데, 1734년에 청의 옹정제(雍正帝)때 이 터에 다시 만수궁을 세웠다. 현존하는 건물 대부분은 1949년 이후에 세워진 것이며, 용정 대전 앞에는 운룡이 새겨진 3층의 72단의 돌계단이 있다. 공원 한가운데 위치한 용정은 1692년 강희제가 세운 것으로 내



▲용정(용정대전)

부에는 당시의 화려한 연회 장면을 재현한 인형들이 전시되어 있다. 정자에는 황제의 비가

²¹⁾ 변방에 설치하여 군대를 거느리고 그 지방을 다스리던 벼슬

²²⁾ 궁궐 안에 있던 동산이나 후원

모셔져 있으며, 황제는 용과 견주어져 있어 용정이라고 부른다. 오랜 시간동안 중국 왕조의 관아와 황궁이었던 곳이었으니 얼마나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지 기대가 된다. 하지만 가장 번영했던 송대 황궁의 모습은 황하의 범람으로 묻혀버려 호수 아래에 있어 그 당시의 모습을 볼 수 없다고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이니 믿거나 말거나 이지만 용정공원 뿐 아니라 개봉의 여러 유적지들이 황하의 잦은 범람으로 잠겨있다는 사실과 이 도시가 잠기기 이전에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는 청명상하도를 통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한원비림(翰园碑林 hànyuánbēilí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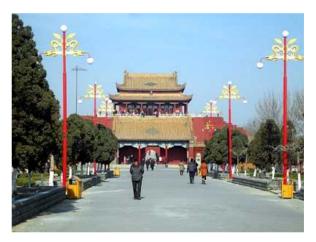
입장료 : 30元

교통정보 : 청명상하원 东北门이나 东 南门으로 나와서 조금만 걸으면 한원비 림 西南门 도착

1996년도에 개관한 한원비림은 전국유명 비석들을 수집하여 약 3,700여 개의 비로 숲을 이루고 있는데, 고대 역대왕조를 거치면서 정착된 다양한 서체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곳이다. 비림 문화는 중국의 진시황이 전국을 유람할 때 석각으로 역사를 기록했던 것들을 한 곳에 모아 보관하면서 많은



▲한워비림



▲용정으로 가는 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던 것에서 시작하였다. 이 문화가 성행하면서, 비 림은 중국인들의 사상적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고 한다. 비석에는 역대 명필가 들의 혼이 서린 비문이 적혀 있고, 훌 륭한 서예가들의 필체도 그대로 남아 있다. 우리는 그 비석을 통해 그 사회 적, 역사적 흐름을 감지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비석이라는 것은 기록으로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역사적 가치가 녹아있을 것이다. 한원비림은 중국의 서안비림(西安碑林) 다음으로

큰 제2의 비림으로 비문예술과 고전원림²³⁾의 건축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한 채의 예술 보물창고이다. 표현 내용과 표현대상에 따라 여러 비랑을 설치하였다. 현대비랑, 역대 제왕·명신비랑, 회회비랑, 전각비랑, 소수민족 문자서법비랑, 소년서법비랑, 국제우의비랑 등이 있

²³⁾ 집터에 딸린 뜰. 혹은 공원의 수풀

다. 연대순으로 갑골문, 예서, 해서, 행초서에 이르는 빼어난 작가들의 명필 비문이 1층에 가득하고, 2층에는 현대 작가들이 한원비림 개관에 즈음하여 쓴 3천여 점의 비문이 전시되어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이 절로 나오게 한다고 한다.

한원비림에는 국내외 지도자들도 많이 방문하였다. 우리나라의 김영삼 대통령도 2000년 도에 중국을 방문하여 이곳 한원비림을 찾아 '동방문화 예술보고'(東方文化 藝術寶庫)라는 휘호를 남겼다. 김영삼 대통령의 생가에 있는 김영삼 대통령의 흉상도 한원비림을 방문했는

데, 당대 중국의 유명한 조각가인 조준양선생이 김영삼 대통령이 한중문화 교류에 공헌한 것에 감사하여 조각한 것이라고 한다. 한원비림의 창건자인 이공도(李公壽)선생은 2011년 9월 한국미술관에서 한국비림박물관과 함께 특별 전시회를 가졌다. 우리나라 충남 보은에도 '한국비림박물관'이 생겼는데, 서안비림과 한원비림을 보고 우리나라 후손들에게도 역사적 유물을 한곳에모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짓게 된 것이라고 하니 한원비림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고조된다.



▲한원비림

대상국사 [大相国寺 dàxiàngguósì]

입장료: 30元

개장시간: 08:00 - 18:00

교통정보: 시내버스 1, 5, 8, 9번 버스 相国寺 하차



▲ 대상국사 입구

원래 대상국사의 터는 춘추시대의 사군자 중하나인 신릉군의 저택이었다고 한다. 서기 555년 남북조 시대에 정권을 잡고 있던 북제가 국가 안위를 축원하고자 이곳에 건국사(建國寺)라는 절을 세웠다. 수차례 화재와 홍수를 겪으며그 모습을 잃었지만, 당나라 시대 때, 무측천에의해 폐위됐던 예종이 복위하면서 재건축되었다. 그는 폐위 후 상왕(相王)의 신분에서 다시 황제의 자리를 계승하게 된 것을 기념하여 당나라연화 원년(712)에 이곳에 '대상국사'라는 편액을

내렸다고 한다. 송나라 때에는 황실의 불교사원으로 지정되면서 최고로 융성한 시기를 누리게 되었다. 현재는 개봉 시내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금의 모습은 송나라 시절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고 청나라 강희 10년에 중건되어, 1992년 중국 정부에 의해 개보수 되었다.

대상국사 입구에 들어서면 볼 수 있는 노지심 동상은 나무를 뽑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는 채소밭에서 만난 건달들 앞에서 힘자랑을 하는 모습이라고 한다. 노지심 동상 이외에도 대상국사 내부에는 각 건물마다 독특한 불상들과 나한상들, 불교장식들이 넘쳐난다. 특히, 이곳에는 높이 7m의 천수관음상(千手觀音像)이 있는데, 이 불상은 은행나무 고목으로 조각된 후 금으로 도금을 하여 완성되었다고 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 불상을 만드는데 이용된 나무는 단 한 그루라고 하니, 이러한 사실을 알고 감상한다면 천수관음상의 위엄을 좀 더깊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싶다. 또한, 종루에는 4m 높이의 5톤짜리 "상국상종(相國霜鐘)"이 걸려있는데, 이는 개봉 8경중의 하나라고 한다.



▲ 천수관음상

■ 읽을거리 ■

◆ 수호전(水滸傳)

〈수호전〉은 원말 명초(元末明初)에 시내암(施耐庵)이 쓰고, 나관중(羅貫中)이 손질한 것으로 4대 기서(奇書) 중의 하나이다. 수령인 송강을 중심으로 108명의 호걸들이 양산(梁山) 산록 호숫가에 산채를 만들어 양산박(梁山泊)이라 일컬었으며, 조정의 부패를 통탄하고 관료의 비행에 반항하여 민중의 갈채를 받는 이야기이다. 창조된 인물들의 이미지와 묘사된 성격이 매우 다채로운데, 노지심(魯智深), 이규(李逵), 무송(武松) 등과 같이 신분은 낮지만 정의로운 인물이나, 임충(林沖), 양지(楊志), 송강(宋江) 등과 같은 지주 출신자 또는 봉건정권을 섬긴 적이 있는 활발하고 용감한 사나이들이 중심이 되어 이야기가 펼쳐진다.

필치는 거칠지만, 풍부한 색채와 어휘, 발랄한 표현으로 계급과 유형이 상이한 인물들을 그려내고, 이들 인물의 삶의 역정을 통하여 봉건통치 집단의 암흑성과 서민의 비참한 생활, 용감한 투쟁 사상, 감정 등을 나타내었다. <수호전>의 탁월한 인물묘사의 기교와 표현예술은 중국소설 중에서도 손꼽을 만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수호전>이 후일의 문학에 끼친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명(明), 청(淸)의 희곡 중에는 <수호전>에서 취재한 것이 많고 《금병매(金瓶梅)》는 그 일부 역사적 사실을 확대하여 각색한 것이다.

중국 북송 말기 화남 지방에서 일어난 '송강의 난'을 기초로 쓰인 이 소설은 권모술수와 약육강식의 논리가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우리 시대와 매우 닮아 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이러한 시대의 모순들 속에 희망만은 버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의식이 반영된 때문인지, 어찌 보면 한낱 도적때의 이야기에 불과한 《수호지》에 대한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선과 악의 시비를 떠나 그 시대가 안고 있었던 고난과역경을 해쳐 나가기 위한 108명 호걸들의 장렬한 투쟁, 그 하나만으로도 읽어볼 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리라.

108명의 호걸들 중 대상국사와 관련이 깊은 인물인 '노지심'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자한다. 노달(魯達)²⁴⁾은 사진(史進)과 함께 주막에서 술을 마시다가 어디선가 여자 울음소리를 듣게 된다. 의리의 사나이 노달은 울음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내어 진상을 묻고, 울고 있던 소녀의 아비로부터 사정을 들을 수 있었다.

"저희 부녀는 동경 사람으로 이곳으로 일가를 찾아 왔으나, 모두 이사를 가는 바람에 만날 수 없었습니다. 마침 여비도 떨어져 곤란에 처한 저희 부녀에게 어떤 이가 찾아와 제 딸을 이곳 관리인 정도(鄭屠)의 첩으로 들여보낼 것을 제안해와 하는 수 없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도의 본처의 시기로 제 딸은 얼마 되지 않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의 혼사를 중재한 자가 제 딸의 대가로 정도에게서 3000관을 받아갔다며 이를 내놓을 때까지 보내주지 않겠다며 협박을 하여, 하는 수 없이 제 딸은 이곳 주막에서 노래를 팔아 얼마씩 번 돈으로 돈을 갚아 가고 있었습니다만, 최근 손님이 없어 어려움에 처해 저희 딸이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노달은 분개하여 다음날 즉시 정도의 집으로 찾아가 따지니, 정도는 권세를 믿고 하급 관료인 노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화가 난 노달이 무심코 '퍽!'하고 치니 정도는 '억!'하

²⁴⁾ 노지심의 본명

고 쓰러져 그대로 죽어 버렸다. 노달은 즉시 부녀가 머물고 있는 주막으로 돌아와 제지하는 주인을 잡아 죽이고 부녀를 구해주고 자신도 역시 도망하였다. 도망 중이던 노달은 우연히다시 김노를 만나 우여곡절을 격은 후, 자신의 신분을 속이기 위해 오대산 문수원(文殊院)이라는 절로 입산하게 된다. 문수원 주지승인 지진(智眞)장로는 처음엔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으나, 김노의 간곡한 부탁에 하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나 노달의 천성은 법당과는 맞지 않았다. 툭하면 선상에 쓰러져 자고, 소변과 대변은

항상 부처님 뒤에다 보았다. 또한 마을에 내려가선 개고기에 술을 먹고는 절을 때려 부수니, 지진장로는 생각다 못해 노달을 자신의 스승이 있는 대 상국사로 보낸다.

대상국사의 주지승인 지청선사는 승려들을 불러 모아 이를 회의를 열 어 노달을 채원(菜園)²⁵⁾의 책임자로 하여 절밖에 두게 된다. 동내 건달들 이 채원에 자주 난입하여 채소를 도 적질하는 일이 자주 있었는데, 노달은 그 무지막지한 힘으로 건달들을 모두 제압하여 오히려 자신의 부하로 삼는 다.



▲ 대상국사에 있는 노지심 동상

²⁵⁾ 채소밭

청명상하원 [清明上河园 qīngmíngshànghéyuán]

입장료: 80元

개장시간: 9:00 ~ 20:00

교통정보: 시내버스 1, 15, 30타고 청명상하원(淸明上河园)에서 하차



▲ 청명상하원 입구에 있는 장택단 동상

에 관한 재밌는 공연까지도 관람할 수 있을 것이다.

청명상하원은 청명상하도를 재현해 놓은 테마파크로, 그림 속의 건물들은 물론이고 당시 개봉에 흐르던 변하(汴河)까지 옮겨놓았다. 뿐만 아니라 그곳 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도 모두 송나라 시대의 전통 복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 시 간을 잘 맞춰서 가면 수호전

다만,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청명상하원은 개봉 시와 중국의 해남그룹이 함께 건설한 대형 테마공원이기 때문에, 역사 유적지의 '예스러움'보다는 '상업적으로 잘 꾸며진 공원'의 느낌이 더 강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부 모습이 청명상하도와 매우 흡사한 것은 사실이니, 청명상하도와 비교하며 청명상하원을 둘러본다면 좀 더 즐겁게 감상 할 수 있을 것이다.

청명상하도[淸明上河圖]

청명상하도는 송나라의 유명한 문인 겸 화가였던 장택단(張擇端)의 그림으로, 북송의수도였던 개봉의 청명절 저자거리 모습을 담고 있다. 이 그림은 개봉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보여주고 있어 당시 사회와 경제사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청명절(淸明節)은 중국의 오랜 명절로 매년 5월 초 전후인데, 봄이 무르익고 날씨가 맑아져서 이때에 사람들은 성묘나 나들이를 가거나 음식을 만들어먹었다고 한다. 북송때에는 청명절 풍속을 그리는 것이 상당히 유행하여 많은 화가들이 이를 주제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중에서 장택단의 청명상하도가 가장 유명하다. 뿐만 아니라 동양의 풍속화전체에서도 이 청명상하도가 으뜸으로 꼽힌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국에서는 국보를 번호로 매기지는 않지만 청명상하도를 국보 1호라고 여긴다.

장택단의 청명상하도는 폭 25.5cm 가로 길이 5m 25cm로 그 크기가 엄청나다. 답사지에 청명상하도의 전체 모습을 담고 싶었지만, 5m가 넘는 그림을 자르지 않고 하나의 그림으로 싣는 것은 불가능하여 이곳에는 그림의 일부분만을 실었다. 대신에, 청명상하도를 전체적으로 감상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두 번째 주소는 2010년 상해 세계박람회 때 선보인 전자판 청명상하도의 모습이 담긴 영상으로, 살아움직이는 인물들을 통해 청명상하도에 생동감을 불어넣어 엑스포 당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고 한다.

http://www.npm.gov.tw/exh96/orientation/flash_4/index.html http://www.youtube.com/watch_popup?v=UdRIbCP4N4Q&vq=medium



▲ 청명상하도의 일부

철탑공원 「铁塔公园 tiětǎgōngvuán]

입장료 : 철탑내부를 들어갈 시 10元

교통정보: 시내버스 1, 3, 6, 20, 25, 26번 철탑공원(铁塔公园) 하차



▲ 철탑공원 입구의 모습

기록에 의하면 이곳에 불교사찰을 지은 것은 북제(北齐) 천보10년인 서기559년이며 당시의 절 이름은 독거사(独居寺)였다고 한다. 그러나 서기 729년 당나라 현종이 태산을 다녀오던 길에 이곳 독거사 부근 행궁에 머물면서 절 이름을 봉선사(封禅寺)로 개명하였고, 서기970년 송 태조 개보 3년에이르러 개보사(开宝寺)로 다시 변경되었다고 한다. 이때부터 개보사는 상국사와 함께 황가(皇家)사찰역할을 하여 역대 황제들이 수시로 찾는 절이 되었다. 서기989년, 북송의 유명한 건축가가 이곳에 높

이가 120m인 목조탑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탑은 1044년에 그만 낙뢰로 인하여 소실되고 말았다. 1049년, 다시 이곳에 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예전의 목조탑(木造搭)을 모방하여 이번에는 벽돌로 탑을 쌓기 시작하였다. 약30여년이 소요되었는데, 대략1073~1077년 사이에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철탑은 8각형의 13층탑으로 표면에 28종의 적갈색 유약을 바른 유리벽돌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쌓았으며 누각 식으로 건축하였다. 완공 후 그 장식이 매우화려하고, 기세가 웅장하였으며 으리으리했었다고 한다. 원래 탑의 이름은 개보사탑(开宝寺塔)이라 칭했는데, 명대(明代)에 우국사탑(佑国寺塔)으로 되었다가 명대 이후에 지금의 철탑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러니 철탑만 유심히 보지 말고, 옆의 불교사찰에 주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철탑이라 불린 것은 적갈색 유약을 바른 벽돌에 철 성분이 다량 함유 되어 있어, 마치 쇠가 녹이 슨 것처럼 탑이 붉게 보였고, 또 멀리서 보면 실제 철탑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1979년, 측량결과 높이가 55.08m로 조사되었는데, 원래는 59m이상의 높이로 추정하고 있다.

◆ 천하제일탑 (天下第一塔 tiānxiàdìyītă)



▲ 아래서 찍은 철탑의 모습

황하의 잦은 범람으로 과거의 개봉 도시유적은 약 30미터 황토 흙 아래 진정한 개봉의 고대 유적지가 묻혀 있다는 말이 있다. 이 개봉철탑(铁塔) 역시 북송시대인 989년에 최초 건립된 고대 유적지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 철탑은 이곳이 본래 산이 있던 곳이라 흙에 묻혀 있지 않고원래 모습대로 보전이 되어 내려오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잘 보존되어 있는지를 새삼스레 느낄 수 있다. 비록 1번의 낙뢰로 인하여 1049년에 재건축이 시작되어 대략1073~1077년 사이에 완성되었다고 추정되지만, 이를 제외하면 약 천 년 간 예전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사실 개봉에서는 수많은 황하 범람뿐만 아니라, 그동안 43차례의지진은 물론이고, 역대의 끊임없는 전란 및 1938년 일본의 침략에 따른 폭격 또한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지금까지 잘 보존 되어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 이 때

문에 모택동이 이 철탑을 '천하제일탑(天下第一塔)'이라 명했다 한다. 탑 테두리 벽돌에는 도깨비 문양과 보살상들이 촘촘히 새겨져있고, 내부는 나선형 계단이 있어 탑 꼭대기까지 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 졌다. 또한 탑의 타일마다 새겨져있는 불상들의 모습은 모두 다르다고 하니 그 곳에 주목해서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믿거나 말거나한 철탑의 비밀

사실 이 철탑을 실제로 보면 약간 중심축에서부터 서북쪽으로 기울어져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이 철탑은 처음부터 서북쪽으로 기울어지어졌다고 말한다. 개봉은 서북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이 탑을 축조할 당시에 100년이 지나면 탑이 곧게 서고 700년 동안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믿거나 말거나 한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니 믿을지 말지는 개인의 자유에..

개봉부 [开封府 kāifēngfǔ]

개봉시 포공호(包公湖) 동쪽에 있다. 넓이는 4만 평방미터이며 건축면적은 1.36만 평방미터이다. 포공서호(包公西湖)에 위치한 포공사(包公祠)와 서로 대응하여 동부서사(東府西祠)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오대(五代)시기 후량(後梁) 태조가 변주(汴州)를 도성으로 삼고, 이름을 동도(東都)라 하였다. 이때 변주는 개봉부(開封府)로 승격하였으며 15개의 현을 관할했다. 북송시기 개봉부는 전국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다.

북송의 태종, 진종, 흠종 세 명의 황제 또한 제위에 오르기 전 개봉부의 부인(府尹)26)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개봉부를 책임졌던 역대 관리로는 관준(寇准), 포승(包拯), 구양수(歐

陽修), 소식(蘇軾), 사마광(司馬光) 등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걸출한 정치가, 사상가, 문학가, 군사가 들이 있었다. 이들은 '공정해야만제대로 살필 수 있고, 모두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공평하고 청렴할 수 있다.'는 공생명(公生明)을 기본으로 삼아 민생을 돌보는정치를 했다. 개봉부는 TV 드라마〈판관 포청천〉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며, 개봉부제명기비(開封府題名記碑)에 있는포승의 이름은 관광객들의 끊이지 않는 손길에 움푹 파였을 정도다.



▲ 개봉부 정문

개봉부에는 정청(正廳), 의사청(議事廳), 매화당(梅花堂)을 중축선으로 하여 천경관(天慶觀), 명예원(明禮院), 잠용궁(潛龍宮), 청심루(清心樓), 뇌옥(牢獄), 영무루(英武樓), 인빈관(寅賓館) 등 50여 채의 크고 작은 건물들이 있다.



▲ 포청천이 사용한 작두

포청천이 직무 하던 개봉부는 원래 황궁의 남동쪽에 있다가 서쪽으로 옮겼다. 현재 포공 호수의 북쪽이었다. 그러나 명나라 숭정(崇禎) 15년(1642) 황하의 범람으로 순식간에 모두 매몰됐다. 그리고 그 주변이 커다란 호수로 변 해 버렸다. 개봉부는 최근에 지어진 것이지만 북송대의 건축양식을 비교적 충실히 반영한 것 이라고 한다.

'개작두를 대령하라!'는 TV 드라마 속의 명 대사이기도 한데, 황족은 용작두, 관리는 호작 두, 평민이나 개만도 못한 일을 저지른 자에게 는 개작두를 써서 죗값을 물었다. 개봉부에서

공명정대한 판결로 청백리 명재상이라 칭함을 얻었던 포청천의 정신을 느껴보기 바란다.

TV 드라마, 판관 포청천

1993년, 온 가족을 TV 앞에 모이게 할 정도로 큰 돌 풍을 일으킨 드라마가 있었으니, 바로 대만에서 제작 된 '판관 포청천'이었다. 당시 9시 뉴스에서도 다뤄 질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모았던 이 드라마는 온 국민에게 금요일 밤을 손꼽아 기다리게 만들었다. KBS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며 수입 드라마로써는 달성하기 어려운 약 20%의 경이로운 시청률을 기록하였다. 이에 뒤질세라 SBS에서는 '칠협오의'라는 드라마를 선보이기도 했다. 엄청난 인기로



▲ 포청천의 포스터

인해 포청천 역을 연기했던 배우는 방한을 하였고, 전조는 전국구 스타가 되기도 했다.

²⁶⁾ 상서와 시랑 사이의 관직

후에 끊임없이 '신 포청천' 등 다양한 후속 작이 나왔으나 원작의 인기를 뛰어넘지는 못했다. 죄인의 신분과 죄의 경중에 따라 개작두, 호작두, 용작두가 다르게 쓰였다. 마지막에 작두를 내려치는 대사인 "쳐라!"는 유행어가 되기도 했다.



▲ 드라마 '판관 포청천'의 한 장면

포공사 [包公祠 bāogōngcí]

입장료: 20元

포공사(包公祠)는 개봉성 서남부에 있으며 포공호 (包公湖)변에 위치해 있다. 포공사는 중국 역사상가장 유명했던 청관(淸官) 포청천(包靑天)의 사당이다. 포청천은 1990년대 '판관 포청천'이란 TV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포공사는 북송시대의 정치 개혁가이자 관리인 포증(包拯)27)을 기리기 위해 개봉 시민들의성금으로 1987년에 세워졌다. 포증은 평생 공명정대하고 청렴한 관리로 지냈다. 그래서 이미 금(金), 원(元)때 부터 사원을 지어 포증의 선정을기려왔다. 개봉의 사원은 근대에 새로 지은 것으로, 중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많은 자료를보유한 기념관이다.



▲ 포공사 정문

개봉의 포공사 외에도 합비시(合肥市)와 강서 고안시(高安市), 그리고 광동성 조경시(肇慶市)에도 포증의 사당이 있다. 합비시의 포효숙공사(包孝肅公祠)는 명 홍치원년(1488)에 건설되었으나 불타 없어진 것을 청 광서8년(1882) 이홍장이 다시 지은 것이다. 고안시 화림 포공사(華林包公祠)는 명나라 초기의 건축물이며, 광동성 조경시 포공사의 건축 시기는 정확하지 않다. 포증의 묘는 합비시 포효숙공묘원(包孝肅公墓園)에 있다.

²⁷⁾ 포청천

개봉 포공사의 면적은 1만 평방미터이며 조벽(照壁), 비정(碑亭), 이전(二殿), 대전(大殿), 동서배전(東西配殿), 백룡정(百龍亭) 등의 건축물들이 있다. 사원의 동부에는 영석원 (靈石苑)이라고 하는 석조와 나무들로 꾸며진 작은 정원도 있다. 포증의 동상과 처형에 사용했던 작두들, 그리고 정무를 보는 포증의 밀랍인형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이 밖에도 <개 봉부제명기비(開封府題名記碑)>와 포증의 이야기를 다룬 문헌들이 보관되어 있다. 1997년 하남성의 10대 여행지로 선정되었다.

■ 읽을거리 ■

◈ 포증(包拯)은 누구?

포증(包拯: 999~1062)은 북송시대의 유명한 정치가이다. 자는 희인(希仁), 이름은 증(拯), 여주(廬州) 합비(合肥)²⁸⁾ 출신이다. 북송 진종(眞宗) 함평(咸平) 2년(999), 포증은 전통적인 학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송 왕조의 하급 관리였다. 북송 인종(仁宗) 천성(天聖) 5년(1027), 포증은 진사(進士)에 급제하여건창현(建昌縣) 지현(知縣)에 임명되었으나 연세가 많은 부모님을부양하기 위해서 관직을 사임하였다. 몇 년 후 양친이 모두 돌아가시자 무덤가에 초막을 짓고 3년 상을 치렀으며, 그 후에도 명리(名利)를 탐하지 않고 고향에서 정직하고 소박한 생활을 하였다. 북송 인종 경우(景祐) 4년(1037), 그는 천장현(天長縣)²⁹⁾의



지현에 임명되었다. 약 40여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정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지만, 이때부터 그는 죽기 전까지 강직한 성품으로 청렴결백하고 공평무사한 정치를 펼침으로써 위대한 발자취를 중국 역사에 길이 남기게 되었다.

Episode.1

그가 천장현 지현으로 있을 때, 한번은 그 현에 특이한 소송사건이 하나 발생하였다. 어떤 농민이 밤에 소를 외양간에 매어두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소가 땅바닥에 드러누워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그 농민이 소의 입을 벌리고 살

퍼보니 누군가에 의해 소의 혀가 잘려있는 것이었다. 분통이 터져 참을 수 없었던 그 농민은 즉시 관청으로 달려가서 고소를 하고, 포증에게 소의 혀를 자른 사람을 잡아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 미궁에 빠진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포증은 잠시 생각을 하다가 그 농민에게, "일단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그 소를 도살하여 팔아버리게."라고 하였다. 당시의 법률에 의하면 소는 개인이 임의로 도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혀가잘린 소는 얼마 살지도 못할 것이고, 관청에서 소를 도살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결국 그소를 도살하였다.



다음날 어떤 사람이 천장현 관청으로 찾아와서 그 농민이 임의로 소를 도살했다고 고발했다. 이에 포증은 자세한 내막을 물어본 후 즉시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²⁸⁾ 지금의 안휘성 합비

²⁹⁾ 지금의 안휘성 천장현

"정말 대담한 놈이로구나. 네가 남의 소 혀를 잘라놓고 도리어 임의로 소를 도살했다고 그 사람을 고발하다니!"

그 사람은 갑작스런 포증의 호통에 할 말을 잊고 멍하니 있다가 땅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고 그의 죄행을 사실대로 인정하였다. 사실 소의 혀를 자른 사람은 그 농민과 원한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소의 혀를 자른 다음에 다시 그 농민이 임의로 소를 도살했다고 고발했던 것이다. 이 일이 있은 이후 포증의 판결에 대한 명성이 크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Episode.2

어느 날 한 아이가 울고 있었다. 그 아이는 병든 어머니의 약을 사기 위해 장사를 했는데 매일 빵을 기름에 구워 파는 일을 하고 있었다. 하루 종일 튀긴 빵을 팔아 번 광주리 속의 돈을 바위 옆에 앉아 세니 동전 100개였다. 너무 기뻐 빨리 어머니의 약을 사려 했는데 이른 아침부터 장사를 했던지라 피곤해서 바위에 기대어 잠을 잤다.

아이는 한참 후에 깨어나 그제야 돈을 잃어버린 것을 알고 울고 있던 것이다. 마침 지나가는 포증이 자초지종을 듣게 됐다. 한참 곰곰이 생각한 그는 우는 아이에게 "내가 알겠다. 바로 이 바위 녀석이 훔쳐간 게로구나." 하며 바위에게 심문을 하기 시작했다. "바위야! 바위야! 네가 아이의 돈을 훔쳤지. 이실직고 하거라!"하며 바위를 때리기도 하고 고함도 치고 그러는 중이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의아해 하는 게 당연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포증이 총명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흐리멍텅한 사람이었군."이라 말하기 시작했다. 포증은이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내며, "내가 지금 바위에게 심문을 하고 있는데 어찌 하여 험담을하느냐!"하며 "너희들 모두 별로 동전 하나씩을 내거라!"라고 했다. 그리고는 사람을 시켜 대야에 물을 붓고 한 사람씩 동전을 던지라고 했다.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동전 한 닢씩을 차례로 대야에 던져 넣기 시작하였다. 그러다 어떤 한 사람이 막 동전을 던지고 지나가자 아랫사람을 시켜 잡으라고 지시했다. 사람들이 영문을 모르고 있는데, "네 녀석이 바로 도둑놈이구나. 저 아이의 기름기 묻은 동전을 훔친게 사실이렷다!", 여전히 사람들이 의아해 하자 말하길 "보거라, 이놈이 떨어뜨린 동전만이수면 위에 기름이 뜨질 않느냐! 바로 아이가 잠든 사이에 훔친 게 분명하다!"고 하자 그제야 사람들 모두 말하길, "역시 포증은 총명하구나."라고 했다 한다.

포증은 여러 곳에서 지방관을 역임하였는데, 그는 가는 곳마다 과중하고 잡다한 세금을 없애고 억울한 사건을 깨끗이 해결해 주었다. 그 후 그는 경성(京城)으로 가서 간관(諫官)을 역임하면서 인종에게 불법을 저지른 관료들을 막기 위한 많은 시책들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당시 북송은 범중엄(范仲淹)의 신정(新政)이 실패로 끝난 후 조정의 부패가 날로 극심해졌다. 특히 경성 개봉부(開封府)에서는 고관대작들과 황제 인척들의 부정부패가 더욱 심하였으며, 그들은 국법도 안중에 두지 않았다.

가우(嘉祐) 원년(1056) 12월, 이러한 혼란한 정치적 상황 하에서 인종(仁宗)은 개봉(開封)의 질서를 정돈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포증을 개봉부지부(開封府知府)에 임명하였다. 포증은 그 이듬해 3월에 정식으로 부임하여 가우 3년 6월까지 약 1년 4개월간 개봉부를 맡았다.

개봉부는 황실의 내외척과 권문세족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다. 그 전에는 그 누구도 그 직책을 맡고 권문세족들과 내통하여 뇌물을 받지 않은 적이 없었다.

포증은 개봉부지부에 임명된 이후 이러한 부패를 척결하기로 결심하였다. 송대의 법규에 의하면, 누구든 관청에 고소를 할 때는 먼저 대리인에게 부탁하여 고소장을 쓴 다음 담당 관리를 통하여 그것을 지부에게 전달해야 하였다. 이때 간악한 소송 대리인들은 사기를 쳐서 무고한 소송인들의 재물을 갈취하곤 하였다.

포증은 그러한 법규를 철폐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고소를 할 때는 직접 개봉부 앞으로 와서 북을 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북소리가 울리면 개봉부에서는 정문을 열고 백성들이 직접 안으로 들어와서 고소를 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개봉부의 관리들은 더이상 중간에서 농간을 부릴 수 없게 되었다.

포증의 법집행이 엄격하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개봉부의 권문세족들은 함부로 나쁜 짓을 저지르지 못했다. 그리하여 개봉부에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포증이 청렴한 관리라는 사 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민간에서는, "청탁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염 라대왕과 포증이다."라는 노래가 전해지고 있을 정도였다.

포증은 친척과 친구들에게도 매우 엄격하였다. 어떤 친척이 그를 후원자로 이용하려고 하였지만 그는 전혀 돌아보지 않았다. 세월이 갈수록 친척과 친구들도 그의 강직한 성품을 파악하고는 더 이상 개인적인 일로 그를 찾아가지 않았다.

가우 6년(1061), 인종은 포증을 매우 신임하고 중시하여 그를 추밀부사(樞密副使)로 승진 시켰다. 그는 고관이 된 후에도 사생활은 일반 평민과 같이 소박하고 검소하였다. 그 이듬 해 5월 그는 중병을 얻어 죽으면서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

"후대에 자손들이 벼슬을 하여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이 죽은 이후에도 우리 포씨(包氏) 집안의 선산에 묘를 쓰지 못하도록 하라."

포증은 살아서는 청백리로 사람들의 청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사람들은 그를 청백리의 전형적인 인물로 삼고 그를 추앙하여 '포공(包公)'이라 하였다. 민간에는 포공이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하고 부패한 권세가들을 과감하게 처단하는 이야기들과 포공의 재판을 다룬 희곡·소설 등이 많이 전해오고 있다. 비록 그것들 중에는 허구적인 이야기도 많지만 거기에는 청백리에 대한 사람들의 존경이 반영되어 있다. 탐관오리와 악덕 토호세력을 척결한 것은 포증의 일생 중 가장 돋보이고 가장 청송을 받는 부분이다.

◈ 포증과 중국 문학

포증(包拯)은 전기적인 인물로 남송(南宋)과 금대(金代)에 이미 그를 주인공으로 삼은 소설과 희곡 등이 출현하였으며, 원대(元代)에는 포공희(包公戱), 포공전설(包公傳說), 설서화본(說書話本), 소설 등에서 포공을 찬양한 작품이 매우 성행하였다. 명대에는 각종 전기(傳奇) 지방희(地方戱)와 수백 권에 이르는 소설화본 《포공안(包公案)》으로 더욱 발전하였으며, 청대에는 다시 《용도공안(龍圖公案)》, 《삼협오의(三俠五義)》, 《칠협오의(七俠五義)》 등의 장편소설로 발전하였다. 지금까지도 중국의 지방희는 물론 희곡과 소설 속에서 포증을 주제로 한 작품은 많이 전해지고 있다. 1993년부터 그를 주인공으로 한 「포공(包公)」 극집이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약 500여 편의 영화가 제작되었으며, 이로써 포증은 중

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포청천이란 이름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는 이미 시공을 초월하여 청백리(淸白吏)의 전형적인 인물로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그 명성이 자자하다. 1062년에 포증은 향년 64세로 병사했다. 그가 죽은 후에는 다시 그를 예부상서(禮部尚書)에 추증하고, 시호를 '효숙(孝肅)'이라 했다. 현존하는 그의 문집으로는 《포증집(包拯集)》《포효숙공주상의(包孝肅公奏商議)》 등이 있다.

◈ 포공과 민간신앙

현재까지도 중국인들은 포공의 사당을 찾아가 그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다. 그의 공평무사한 판결과 청렴결백한 생활, 예리한 통찰력은 많은 대중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이로써 그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 서 자연스럽게 신적인 인물로 승화되었던 것이다.

그는 민간종교에서 숭배되는 신이지만 그것은 보통 사람들이 믿는 종교적인 '하느님'과는 다르다. 즉 그는 하늘에서 강림한 신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으로서 초인적인 신으로 변화된 '인신(人神)'인 것이다.



포공에 대한 숭배는 마카오에서 가장 성행한다. 지금도 마카오에서는 매일 포공의 사당을 찾아가서 복을 기원하는 사람들의 행렬이 끊임없 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숭배는 포공이 선한 사람을 보호해 주고 악한 사람을 징벌해 주며, 재앙을 없애 주고 복을 내려 줄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포공에 대한 숭배는 사회 정 의와 바른 정치의 실현에 목말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왕대 [禹王臺 yǔwángtái]

입장료 : 10元

개방시간 : 07:00 - 19:00 교통정보 : 15번 버스

하(夏)왕조의 시조인 우왕의 사당으로 명 나라 때 세워졌다.

춘추전국시대 진(晋)나라의 대음악가 사광(師曠)이 이곳에서 악기를 연주했다고 해서 취대(吹臺)라고도 부른다. 그리고 우왕대 양쪽에는 각각 작은 사당이 있는데, 동쪽 것은 삼현사(三賢祠)로, 당나라의 시인이백(李白)고 두보(杜甫) 그리고 고적(高適) 세 사람이 취대에 올라가 시를 읊었던곳이다. 서쪽은 수덕사(水德祠)로, 중국 역사상 치수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37명의 위패가 걸려 있다.



▲ 우왕대의 정문

◈ 사광(師曠)은 누구?

사광은 옛날 음악을 배우다가 진도가 안 나가자 눈에 보이는 것이 많아 잡념이 많이 생겨 서라고 생각해서 독초를 태운 연기를 눈에 쏘여 장님이 된 후에 득음을 한 사람이다. 사광 과 관련된 일화는 다음과 같다.

어느 날, 진 평공이 여러 신하들과 술을 마시고 얼큰하게 취하자 길게 탄식하며 말했다. "군주라는 지위보다 더 즐거운 것은 없구나! 군주의 말은 그 누구도 거역하지 않는구나!" 그러자 그 앞에 앉아있던 사광(師曠)이 비파를 들어 평공을 향해 던졌다. 다행히도 평공이 몸을 피하였고 사광이 던진 비파는 벽에 부딪혀 부서져 버렸다.

평공: "태사(太師)는 누구를 치려 한 것인가?"

사광: "지금 웬 소인배가 말을 하고 있어 그를 치려고 했습니다."

평공: "그 말을 한 사람은 바로 나일세."

사광: "그렇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은 군주로서 입에 담으실 말이 아닙니다."

주위의 신하들이 거문고에 맞아 홈이 난 벽에 칠을 할 것을 청하자, 평공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만두어라. 그것으로 과인은 계명을 삼겠다."

◈ 우왕(禹王)은 누구?

중국의 시조 설화를 보면 삼황오제(三皇五帝)로부터 시작된다. 여기서 삼황오제란, '태호 복희, 염제 신농, 황제 헌원'이 삼황(三皇)이며, '소호, 전욱, 제곡, 제요, 제순'의 오제(五帝)를 말한다. 이 오제 중 마지막 두 명이 '요순시대'로 알려진 요(堯)와 순(舜)이다. 그리고 이 순임금에게 다시 선양을 받아 왕이 된 인물이 우(禹)왕인데, 이 사람이 바로 중국 최초의 세습왕조 '하(夏)나라'의 시조이다.



◈ 우왕과 치수(治水)

순 임금의 아들인 상균(商均)은 아버지를 닮지 않아 변변치 못하였다. 그래서 순 임금은 사사로운 정을 끊고, 남이지만 뛰어난 인재인 우(禹)를 천거하여 후계자로 삼았다. 그리고 자신은 남방의 여러 제후국을 순행하다가, 도중에 창오(蒼梧)라는 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우가 뒤를 이어 황제의 자리에 오르니, 이것이 하(夏) 왕조의 시작이다.

우왕의 성은 사(姒)씨이다. 아버지 곤(鯀)은 요 임금의 명령으로 9년 동안 물을 다스렸으 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세상은 잘 다스려졌으나, 황하의 잦은 범람이 가장 큰 골칫거리 였다. 요 임금은 아버지 대신 그의 아들인 우에게 이 일을 맡겼다. 우는 몸과 마음을 다하 여 노력을 기울였다.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집에 들어간 적이 없었다. 자기 집 문 앞을 지나치는 경우에도 절대로 집에 발을 들여놓는 일이 없을 정도로, 사사로운 일은 돌보지 않 고 공적인 일에만 전력을 기울였다.

그가 홍수를 다스리면서 육지로 갈 때는 수례를 타고, 물을 건널 때는 배를 타고, 진창을 지날 때는 썰매를 이용 하고, 산 속을 헤맬 때는 연30)을 신고 종횡으로 활약하였 다. 중국 전체를 개척하여 9개 구역으로 나누고, 전국의 하천을 정리하여 물길을 통하게 하였다. 전국의 못과 호수 에 제방을 쌓아 물의 범람을 막았으며, 산을 측량하여 치 수사업을 완성한 다음 순 임금에게 보고하였다. 순 임금은 그것을 보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여겨, 천하의 모든 신 하들을 거느리고 정치를 대행하게 하였다.

그의 정치에 대한 열성은 한 번 식사를 하는 동안 열 번 이나 일어날 정도로 천하의 백성들을 깊이 생각하였다. 그 리고 전국의 무쇠를 거두어 아홉 개의 솥(九鼎)을 만든 다 음, 전국의 제후들을 도산(途山)에 모이게 한 뒤, 새 왕조 우임금의 물을 다스리는 그림 를 열고 모든 제후들의 복종을 다지는 성대한 대회를 열었 다.



▲ 대우치수도

우 임금은 남쪽을 순행하다가 회계산(會稽山)에 이르러 죽었다. 아들 계(啓)가 뒤를 이었 는데, 이때부터 천자의 자리는 세습되었다.

³⁰⁾ 험한 길을 걸을 때. 빠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신 바닥에 대는 기구

송도어가 [宋都御街 sòngdūyùjiē]

교통정보 : 용정공원 남대문에서 시작하여 약 400m정도 이어진 길.

송도어가는 1990년에 송 대 건축을 복원해 놓아 전통적인 분위기를 자아하는 곳이다. 송

도어가로는 궁성에서 외성으로 펼쳐지는 4개의 어가가 있는데, 이들 각각의어가는 술집, 말 시장, 소시장, 쌀시장등등의 상점들이 들어서 있었고 번화했던 개봉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이곳은 간판까지도 북송시대 그대로 복원할 정도로 공을 들인 거리로, 주로전통 그림, 문방사우, 골동품 등을 파는 상점이 많은 아름다운 거리이다. 호수근처에 '청명상하원'이 있지만, 그 곳은입장료가 비싸니 이곳에서 잠시 송 대거리의 분위기를 느끼는 것도 나쁘지않다고 생각한다.



▲ 송도어가 입구의 모습

◈ 송도어가의 유명한 가게



▲ 과첩(锅贴)

이 곳 송도어가에 있는 '고려의포' 라는 고려와 송과의 관계가 좋았음을 짐작케 하는 비단 가게가 있다. 그래서인지 한국 사람들이 송도어가에가면 이곳을 한번 유심히 본다고 한다. 고려의포에 들를 때, 바로 맞은편에 도향거(稻香居)라는 유명한 음식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곳은 청(淸) 광서(光緖) 8년(1882)에 개업한 군만두로유명한 집이다. 개봉의 대표적인 별미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관통소롱포자(灌汤小笼包子)'와 '과첩(锅贴)'이다. 전자는 뜨거운 육수가 들어있는고기만두인데 '제일루(第一楼)'라는 식당에서 파

는 것이 유명하다고 한다. 후자는 만두를 구울 때 솥바닥에 밀가루 껍질막을 얇게 깔아 만두들이 서로 달라붙게 하여 만든 일종의 군만두를 일컫는다. 군만두도 맛있지만 군만두에 달라붙은 이 껍질막이 훨씬 별미라고 한다. 도향거가 바로 이 과첩을 파는 유명한 집이다. 2008년 기준 한 접시에 10元이니 한번 먹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 야시장

저녁 무렵이 되면, 송도 어가 근처에서는 야시장이 열린다. 개봉 야시장은 중 국의 '3대 야시장'중 하나 이다. 명성에 걸맞게 다양 한 종류의 음식들이 정말 많이 있다고 한다. 가격 또 한 저렴하다고 하니, 정신 없이 먹다가 배탈 나지 않





▲ 한국의 떡, 약밥과 비슷한 간식들 ▲ 다양한 종류의 꼬치들

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여는 시간은 오후 5시 반 정 도에 시작해서 밤 12시 정도에 끝난다고 한다.

특히, 야시장에서는 꿀, 땅콩 및 여러 가지 재료들을 섞어서 절구에 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개봉만 의 특산품인 '땅콩병'을 만드는 모습이다. 땅콩병은 우리 나라의 땅콩강정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자체로도 달 달하니 맛있지만, 중국차와 함께 먹으면 그 맛이 배가 된다고 한다.



▲ 땅콩병 만드는 모습

개봉의 먹을거리

사실 개봉은 중원에 위치하여 일찍부터 발전해 와서 때문인지, 요리문화 역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한다. 개봉의 요리는 정주, 안양, 낙양과 함께 예채(豫菜)로 분류되며 오랜 세월동안 수도였던 덕에 많은 유명요리를 만들어 냈다. 개봉요리로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으로는 개봉관탕포자(開封灌湯包子)가 있으며, 잉어를 새콤달콤하게 요리한 이어배면(鯉魚焙面), 네 가지 날짐승을 재료로 한 투사보(套四寶), 동과육을 맑은 탕과 접목시킨 청탕동과육(清湯東坡內), 토끼고기에 다섯 가지 향을 첨가한 오향토육(五香兔內) 등이 있다.

◈ 개봉관탕포자(開封灌湯包子)

개봉소롱포자(開封小籠包子)라고도 한다. 포자의 크기가 작아, 작은 대나무 증롱(蒸籠)에서 찌기 때문에 소롱포자라 불리는 것이다. 하지만 포자 속에 국물이 들어있는 특징이 있어 관 탕포자라고도 하며 빨대로 속에 들은 국물을 마신 후에 먹는다. 소롱포자는 황계선(黃繼善) 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가 만든 포자는 눈처럼 희고, 식감이 좋아 손님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는 발효된 밀가루반죽과 발효하지 않은 밀가루 반죽을 1:2의 비율로 섞어 사용했다. 그러나 나중에는 발효하지 않은 반죽만을 사용했고, 특별한 과정을 거쳐 아주 찰진 반죽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다. 또한 원래는 큰 증롱에서 포자를 쪘지만,



▲ 소롱포자로 유명한 제일루

나중에는 작은 증롱을 개발 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면과 고기, 탕을 즐기는 북방 인 들의 기호를 반영하여 돼지 의 뒷다리 살코기로 소를 만들고 탕을 함께 넣어 포 자를 만들었다. 이는 엄청 유명해져서 지금까지도 개 봉을 대표하는 음식 중 하



▲ 개봉관탕포자

나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시 중심부에 위치한 개봉제일루 (開封第一樓)의 관탕포자가 가장 유명하다고 하니 시간이 나면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 이어배면(鯉魚焙面)

중원의 요리인 예채(豫菜)31)중에서 개봉의 전통요리이다. 탕초유어(糖醋溜魚)와 배면(焙

面) 두 가지가 있다. 1900년 청나라 도광황제와 서태후는 8국 연합군에게 쫓겨 개봉으로 피난을 갔다. 이때 개봉관아의 요리사가 설탕과 식초로 양념한 잉어요리인 탕초유어를 바쳤는데 황제와 서태후는 이 요리를 매우 맛있어 하여, 황제가 '고도일가효(古都一佳肴)'32)라고 칭찬하기도 하였다. 1930년 이후에는 기름에 튀긴 용수면(龍須面)을 탕초유어 위에 올리기도 했는데, 이렇게 하여 이어배면이라는 요리가 생겨나게 되었고, 손님 접대용 요리로 크게 인기를얻었다. "先食龍肉,後食龍須"33)라는 말이 있다고 하니, 이와 같이잉어를 먼저 먹고, 면을 나중에 먹으면 된다고 한다.



▲ 중원의 대표요리인 이어배면

◈ 투사보(套四寶)

청나라 말기 개봉의 유명한 요리사 진영상(陳永祥)이 개발한 요리이다. 오리와 닭, 비둘기, 메추라기 네 가지를 재료로 사용하며, 뼈를 발라낸 이들 고기를 서로 층층이 포개어 요리한다. 진영상이 투삼배(套三環)라고 하는 전통요리를 발전시켜 만들었으며 '예채일절(豫菜一絕)'로 평가받고 있다고 할 정도로 맛이 일품이라 한다. 탕 속에 통 오리가 있고, 그 뱃속에 닭이 있으며, 그 뱃속에 비둘기가 있고, 비둘기의 뱃속에는 해삼과 대나무죽순, 버섯으로 채운 메추라기가 들어있다. 서 태후의 눈에 띄어 황실요리가 된 바 있다.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 잘 맞을지는 모르겠다.

³¹⁾ 정주, 안양, 낙양, 개봉 지역의 요리

³²⁾ 고도 최고의 안주

³³⁾ 먼저 용의 고기를 먹고. 나중에 용의 수염을 먹는다.

답사를 떠나기 걸..

답사를 떠나기 전에...

2009650026 한가희

1학년 겨울방학, 산동지방으로 답사를 다녀왔었다. 그 때도 답사지를 제작했지만, 솔직하게 말하자면 당시 나는 답사지를 열심히 만들지 않았었다. 내가 맡은 부분과 관련된 내용만 빠르게 짜깁기하여 완성하여 제출하였고, 다른 학우들이 작성한 부분 또한 주의 깊게



▲ 네 가지 날짐승을 사용한 투사보

살펴보지 않았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특히, 역사유적지를 둘러보는 답사는 더 그런 듯싶다. 준비는 해갔지만 습득하지 못했으니, 몸이 고생한 '태산 등정'만이 기억에 남았을 뿐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난 답사에 대한 아쉬움이 생겼다. 더 관심을 두고 많은 것을 알고 갔었더라면 더 깊이 느끼고 배울 수 있었을 텐데 나는 그것이 몹시 아쉬웠다. 국내유적지라 할지라도 살면서 한 번도 가지 못하는 곳이 허다한데, 하물며 국외는 어떠하겠는가. 어쩌면 인생에서 한번 밖에 가보지 못할 수도 있는 그곳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지나쳐버린 것이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이번엔 하남성을 답사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 이번 답사에서는 지난번과 같은 후회가 남지 않도록 답사지 제작에 나름 신경을 썼다.

내가 조사를 맡은 부분은 '개봉'의 대상국사와 청명상하원 그리고 야시장이었다. 지난 학기 '중국 문화의 사적이해' 시간에 송나라에 대해 배우면서 몇 번 들은 바 있기 때문에 개봉은 이번 답사에 포함된 지역 중에서 나에게 가장 익숙한 곳이었다. 그래서 공고된 답사지역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갔던 곳도 바로 '개봉'이었다. 개봉에 대해 조사하면서 청명상하도를 그대로 재현한 테마파크가 있다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여행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중국이라는 나라는 자신들의 역사적 유산을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난 듯싶다. 청명상하도를 답사지에 담고자 이곳저곳을 뒤적거리던 중 작년에 중국 상해세계박람회에서 전시된 전자판 청명상하도를 촬영한 영상을 보게 되었다. 탄성이 절로 나왔다. 답사지에 영상을 담을 방법은 없고, 나만 혼자 보고 말자니 너무 아까워서 사이트 주소만을 적어두었는데, 시간이 있다면 한번 감상해보기를 추천한다.

개봉은 송나라의 수도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중국 사대기서(四大奇書) 중의 하나인 수호전의 배경으로도 유명하다. 그를 대표할 수 있는 명소가 '대상국사'인데, 수호지의 108호걸중의 한 명인 노지심이 대상국사에서 생활했고, 입구를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그의 동상을통해서도 수호전과 개봉, 이 둘의 연관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대상국사에 얽힌 수호전에 관한 이야기를 알게 된 후, 이번 기회에 중국 고전을 읽어보고자 기세 좋게 도서관으로향하여 수호지를 빌렸다. 이글을 쓰는 지금, 아직 첫 장도 넘겨보지 못했다. 표지에서도 느낄 수 있는 고전의 압박감은 이리도 큰 것일까? 약 5일 후면 하남성으로 떠난다. 수호지 도전의 결과는 개봉 답사 전날 알 수 있을 듯싶다. 이렇게까지 썼는데, 설마 안 읽지는 않겠지. 안 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사실 내가 중국에 처음 발을 내딛은 것은 겨울 방학 답사가 아니라 국제교육원 여름방학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였다. 약 6주 동안, 중국의 수도 북경에서 지내면서 명소라고 할 수 있는 곳은 거의 다 가봤던 것 같다. 그 때 나는 북경의 번화가 왕푸징에서 중국의 야 시장을 처음 경험했다. 전갈부터 시작해서 서울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독특한 음식들이 즐비한 그곳을 구경한 후 나에게 중국 야시장이란 굉장히 흥미로운 장소로 남게 되었다. 활기참이 가득한 번화가에서 처음 야시장을 경험해서 그런 것인지 개봉의 야시장이 중국의 3대야시장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고 처음에는 굉장히 의외라는 생각을 했다. 개봉을 조사하면서, 이곳 '개봉'은 역사 유적지가 오밀조밀 모여 있는 작고 조용한 지역일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곳 야시장이 하남성의 3대 야시장 중에 하나도 아니고, '중국'의 3대 야시장 중에 하나라니 놀라울 따름이었다. 아니,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여러 왕조의 수도 역할을 하며 지금까지 남겨온 것이 '역사유적'만은 아닐 것이다. 더군다나송나라 시절에는 도시가 발달했으니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였을 것이고, 자연스레 큰 시장이형성되었을 테니 개봉의 야시장이 중국의 3대 야시장이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모르겠다.

답사지역을 조사하다보니 답사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져갔다. 내가 조사한 곳들에서 중점적으로 감상해보았으면 하는 것은 청명상하원에서 청명상하도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지와노지심의 동상을 제외하고 개봉에 수호전의 흔적이 존재하는지, 개봉은 어떤 분위기를 담고있는 지역이기에 중국 3대 야시장 중의 한 곳이 이곳에 존재하는지 이다. 이번 답사는 지난답사 보다 열심히 준비하고 익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나에게 좀 더 의미 있는 경험이 될것 같다. 아직은 내가 담당한 지역의 명소만 자세하게 살펴보았지만, 다른 학우가 준비한답사자료도 읽어보며 답사의 전체일정동안 많은 것을 얻고 경험하고자 한다. 2월 4일,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내가 느끼고 있을 감정이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이번 답사지는 가는 곳을 학년별로 나눠서 조사하게 되었다. 3학년은 답사지 중 개봉을 조사하게 되어서 나도 개봉을 조사하게 되었다. 개봉에 대해 조사하기 전에 생각해보니, 개봉에 대해 아는 점이라고는 송나라의 수도였다는 사실 밖에 없었다. 그리고 문득 서안이 생각나면서, 개봉 또한 유물이 많고 당시에 느낌이 어떠한지 추측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조사를 하면서 내가 예측했던 것과는 약간 다른 것을 알게 되었다.

개봉을 조사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허무함이었기 때문이다. 비록 송나라가 망하고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내가 느낀 지금의 개봉과 옛 개봉은 너무 달랐다. 조사한 바로는 송나라 수도인 개봉은 번창했고, 사람들의 왕래가 끊이지 않았다고 들었다. 또한 송나라에서 엄청 번창했던 도시 중 하나였고, 가히 으뜸이라 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지금은 하남성 전체가 낙후된 지역이라는 느낌이 강하다. 아마이런 이미지가 생긴 것은, 한 도시의 이미지와 그 도시의 발전된 정도를 떼려야 뗼 수 없기때문일 것이다. 하남성은 현재 다른 동남부 지역과 비교하면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적기 때문에, 비교적 발전이 더디다. 지금은 국가에서의 지원 및 여러 요인으로 많은 발전을 이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옛 개봉처럼 활기를 띄던 도시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 때 한 국가의 수도이고 사람들의 왕래도 끊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낙후된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하남성의 성도조차도 아닌 것이다. 게다가 안타깝게도 개봉 지역의 특성상 송시대의 유물이 모두 땅에 묻혀있어, 관광객들도 적은 편이다. 송나라이전 왕조인 진왕조의 유물인 진시황의 무덤 등은 지금 중국의 자랑거리 중 하나이며, 서안을 찾는 관광객도 훨씬 많은 편인데 말이다. 이렇게 보니 한 왕조의 수도였던 곳이 이익이 없다는 이유 때문인지 외면 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다.

물론 관광객이 많고 발전이 잘 되어야 좋은 도시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 도시만의 특색을 지니고 있다면, 또한 그 도시에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좋은 도시라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개봉에는 개봉만의 송나라의 옛 거리를 재현한 곳도 있고, 다양한 개봉만의 음식들도 존재한다. 충분히 송대의 특색과 개봉만의 좋은 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생각한다. 그리하여 이번 답사를 통해서 개봉의 좋은 점, 개봉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내가 조사한 것 이상으로 다가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참고끔할

◈ 하남성

김선자 외 7인 공저, <이야기가 있는 중국 문화 기행>, 2011년, 차이나하우스

◈ 정주

이야기가 있는 중국문화기행, 김선자 외, 차이나 하우스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 등봉

이야기가 있는 중국문화기행, 김선자 외, 차이나 하우스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신문기사

http://beopbo.com/news/view.html?section=93&category=171&no=63680

http://www.tvreport.co.kr/main.php?cmd=news/news_view&idx=38017

이데일리 세계

 $\frac{\text{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D61\&newsid=01266086599399032}}{\text{\&DCD=\&OutLnkChk=Y}}$

스포츠 서울 http://news.sportsseoul.com/read/soccer/928165.htm

◈ 낙양

http://blog.hani.co.kr/kangjeongman/15870

http://blog.daum.net/ydoy0000/13115058>

http://blog.hani.co.kr/kangjeongman/31096>

http://blog.naver.com/highfirst?Redirect=Log&logNo=140142845532

넘버원 여행사 (중국-여행정보-하남성-낙양)

http://www.koreaweddingnews.com/html/hunymoon/asia/asia-jg-006-26-B.html

"> 낙양박물관

<http://blog.hani.co.kr/kangjeongman/31393 - 낙양박물관>

http://travel.daum.net/place/place.daum?placeid=HTCC02CLYA0001 - 고묘박물관

<http://v.daum.net/link/18398443> - 고묘박물관

http://report.dreamwiz.com/view/view.hcam?no=8693682 - 낙양

 - 백마사

<http://blog.hani.co.kr/kangjeongman/31393> - 낙양박물관 (구체적)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oads&logNo=20091395240> - 낙양박물관(구체적)2

◈ 개봉

http://toads.blog.me/20091738065>

http://elanor.blog.me/40130929443

http://crystalp.egloos.com/2939814>

http://blog.naver.com/dualover77?Redirect=Log&logNo=70116124891

http://toads.blog.me/20091738065>

http://blog.naver.com/mugi2002?Redirect=Log&logNo=124012487

http://blog.naver.com/ha6gh30?Redirect=Log&logNo=50101324226

http://river571.blog.me/60126453750>

계림의 국토박물관 순례 <blog.daum.net/kelim>

우리 역사의 비밀 http://www.coo2.net/>

사진찍는엄마 http://www.cyworld.com/islsori/3088474

중국여행(명소) - 중국전문 포털 [와이드차이나]-

http://www.widechina.net/bbs/view.php?id=tj_tour&no=634

장택단의 청명상하도와 전자판 청명상하도

http://9.snubugo.net/zboard/view.php?id=public_board&no=17812

네이버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6047>

http://blog.naver.com/admiralyi?Redirect=Log&logNo=70067643776

<http://blog.naver.com/rotc6188?Redirect=Log&logNo=70127324750>

http://www.blog.naver.com/toads

자신만만 세계여행 중국」p.255

'김영삼 전 대통령과 中원로 서화가의 인연' 연합뉴스 기사 (2011년 09월 28일)

중국의 어제와 오늘 http://www.chinabang.co.kr/index.htm

알밤을 주우며 http://jeongba.egloos.com/4303092

열국연의